



오세정 서울대 총장(맨 앞줄 앉은자리 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9월2일 남가주 LA 한인타운 용수산에서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오세정 총장 오른쪽) 등 남가주 고액 기부자들 초청, 오찬을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LA 온 오세정 총장, 동문들에 “감사합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 오찬  
노명호 회장 50만달러 기부  
홍병각 동문 10만달러 약정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난 9월1일부터 4일까지 LA를 방문하면서 2일 남가주 지역 고액 기부자들 및 동창회 임원진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자리에서 노명호 미주동창회 회장은 모교에 50만달러를 기부, 오세정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노명호 회장에 이어 홍병각 동문(문리대 55)이 또한 10만달러 기부 약정식을 갖고 2만달러 펀드를 서울대 발전기금 미주재단 측에 이관했다. 어바인 거주 간호대 서진 동문도 오찬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1만달러 기부 수표를 전달해 왔다.

오세정 총장은 노 회장의 미주에서의 개인적인 업적과 동창회에 대한 헌신, 그리고 모교에 대한 사랑과 큰 지원에 경의와 감사를 표시했다. 아울러 남가주 동문들의 지난 수년간 모교 기부금은 8백만달러에 이른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왼쪽)이 모교 발전을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한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며 남가주 동문들의 모교 지원에 대한 보답을 위해 학교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A코리아타운의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오세정 총장 초청 기부자 및 동창회 임원 오찬’에는 21명의 기부자들과 박경재 LA

총영사, 김종섭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상임 부회장, 미주총동창회 임원진,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단, 그리고 한국에서 오 총장과 동행한 안덕근 국제협력본부장(국제대학원 교수), 채준 발전기금 상임이사 (경명대 교수), 권용수 국제협력본부 선임 주무관



이날 참석한 박경재 LA총영사는 지난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만났을 당시 전해 받은 것이라며 20m 길이의 두루마리 그림(사진)을 오세정 총장에게 선물했다.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있던 그림을 자신의 아버지가 가져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다며 일본계인 캐를 혼다가 보내왔다고 전했다.

등 모두 48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노명호 회장의 환영사, 박경재 LA 총영사의 인사말과 고서 전달식, 오세정 총장의 서울대학교 근황 설명으로 이어졌으며 안덕근, 채준 교수의 부서 소개와 미주 관련 업무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오세정 총장은 USC(남가주 대학), UCLA 총장 회의를 위해 LA를 방문한 일정에서 특별히 동창회와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미주동창회(회장 노명호)와 함께 오찬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 미주동창회 새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입니다.



# 미주동창회,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후원

## 전사자 3만6591명 이름 새겨 남가주 OC 풀러튼에 건립

미주동창회는 오렌지카운티 풀러튼에서 추진중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Korean War Veterans Memorial) 건립 사업'에 5000달러를 기부했다.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인 풀러튼의 힐 크레스트 공원(1360 N Brea Blvd. Fullerton)에 건립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3만6591명의 이름이 각 주별로 새겨진다. 70여년 전 이름도 몰랐던 나라의 땅에 가서 젊은 나이에 순국한 미국 젊은이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은 모든 전사자의 이름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노명수 기념비 건립 후원회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새겨지는 미국 최초의 기념비가 된다. 건립비용은 총 72만달러로 현재 약 40만달러가 모금됐으며 한국 보훈처의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

기념비 건립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회장 노명수)와 풀러튼시(시장 제니퍼 피츠제럴드)가 공동 추진하고 이 지역 출신 연방의원들과 의원들,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 주류 정치인들과 풀러튼 소재 은혜한인교회, 한미 6.25 참전용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필요한 건축자재의 부족, 가격 인상 등으로 완공일이 늦춰지면서 11월 베테른스 데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가수 인순이가 한국에서 1000달러를 보내 오는 등 건립 후원금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주동창회 노명호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1000달러를 후원했다. 후원문의: 기념회 박동우 사무총장 (714) 858-0474

# 수의대 모교사랑은 금메달감 100만 달러 '기부 큰손'도

2일 열린 오세정 서울대 총장 초청 행사는 적잖은 뒷얘기를 남겼다. 이날 초청된 인사들은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에 동참한 동문들과 동창회 임원진, 50여 명의 동문들이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 총장 일행을 맞았다.

## 오세정 총장 오찬 이모저모

0... 이날 행사에서 가장 돋보인 동문들은 수의대 출신. 테이블 하나를 꼭 채웠다. 특히 조두연 동문(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은퇴교수, 62학번)은 멀리 샌디에이고에서 직접 운전해 참석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이외에도 박종수 박사(58학번)를 비롯해 유형규(60학번), 박민식 교수(65학번)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 관계자는 수의대 출신의 기부금은 미주동문 기부총액의 10%가 넘는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의대 동문은 무려 100만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을 내 서울대에선 '기부 큰손'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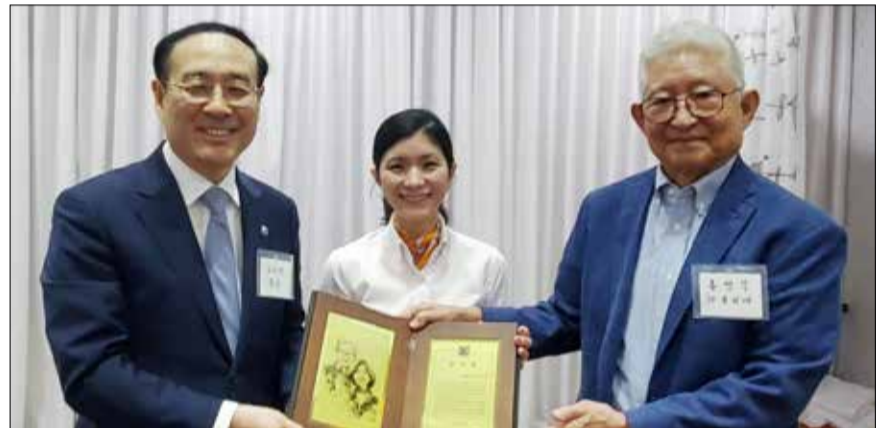
0... "홍병각 동문을 소개합니다." 사회자가 앞줄 오른쪽 테이블을 가리키자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쪽으로 쏠렸다. "누구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여기 저기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분위기를 감지한 사회자가 다시 홍 동문을 소개했다. "궁금하시죠? 다름아닌 벤자민 홍 행장이

## '홍병각 동문이 누구?' 알고 보니 벤자민 홍 행장

입니다." 그제서야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LA한인사회의 올드타이머인 홍 행장은 인수합병을 통해 한인은행의 덩치를 크게 키워 코리아타운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잠재력이 큰 업체를 집중 지원해 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홍 행장의 부인 비비안 여사는 서울대 본부에서 발전기금 기부자 담당으로 일한 바 있어 이날 부군 못지 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0... "처음엔 (일간) 신문인줄 알았어요." 총장을 수행한 안덕근 교수(서울대 국제협력본부장)는 미주동창회보의 높은 수준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울 동창회보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 교수가 또 하나 놀란 점은 LA 공항입국과정, 백신 접종카드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왔는



오세정 총장이 10만 달러 기부를 약속한 홍병각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가운데는 홍 동문의 부인인 비비안 여사.



대학발전기금 기부에 앞장서고 있는 수의대 동문들이 모인 테이블. 박종수 동문의 얼굴이 보인다.

데 솔직히 허탈했다는 것. 아무도 검사를 안해 일사천리로 공항을 빠져나왔으며 놀라워했다. 더구나 50여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한국선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며 역시 미국이라며 엄지를 들어올렸다.

0... 총장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은 김종섭 총동창회 상임 부회장의 건배사도 화제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건배사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 부회장이 이날 선창한 건배사는 '비행기'였다. '비전을 갖고 행동하면 기회가 온다'의 첫 글자를 따 만들었다. 김 부회장의 선창에 모두 힘차게 '비행기'를 외치자 행사장은 박수와 함께 폭소가 쏟아졌다.

김 부회장 자신도 서울대 발전기금에 거의 100억 원을 낸 고액 기부자. 미주총동창회에도 10만 달러를 냈다.

0... 총동창회의 이호진 총무는 행사장을 '우아하게' 꾸미고 빛낸 주인공. 자비로 꽃(오키드)을 사와 테이블을 장식했다. 자칫 밋밋할 뻔 했던 행사장의 분위기가 오키드 덕분에 활짝 폈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동창회 측에선 경비처리 해주겠다며 영수증을 달라고 했지만 이 총무는 일언지하에 거부.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무슨 영수증 처리냐"며 얼굴을 붉혔다.

이날 '이 총무 제공' 오키드를 차지한 여성 참석자들은 '오늘은 운이 역세계 좋은 날'이라며 싱글벙글.



# “전국적 포럼 만들고 지부 포럼 전국화 돕자”

## 16대 미주동창회 사업계획 논의

미국 과학기술계에서도 권위를 인정 받는 동문 과학자 한홍택(공대 기계공학과 60학번) 박사와 김정빈(공대 기계공학과 66학번) 박사가 지난 9월2일 미주동창회 사무실을 찾았다.

한홍택 박사는 제16대 미주동창회 브레인 네트워크 위원장을 맡았고 김정빈 박사는 위원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두 동문 다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UCLA 석좌교수를 하면서 학계에서도 두터운 신망과 인맥을 쌓은 분들이라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두 동문의 사무실 방문을 반겼다.

노명호 회장은 “동창회의 사업은 가능한 많은 동문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는 첫삽을 뜨는 것이고 앞으로 각 지역의 동문들이 전하는 제언과 아이디어들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한 16대 집행부의 사업 계획 논의를 소개한다.

### 포럼은 서울대인에게 맞는 이벤트

이날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미주동창회 차원의 전국적인 포럼을 개최하자는 것이었다. 사실 포럼은 지적 호기심이 많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서울대 동문들에게는 맞춤형 동창회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각 지부별로도 네다섯 곳에서 자체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SNU 포럼을 시작해 13년째 매달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시애틀의 김재훈(공대 전기공학 72학번) 동문은 “포럼은 동문들이 함께 배우며 정보를 교류하는 것 외에도 교양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에 개방하면 동창회가 한인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며 포럼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주동창회 차원의 포럼 개최와 더불어 현재 각 지부에서 운영하는 포럼에 대한 지원과 포럼을 하지 않는 지부들도 포럼을 개최하도록 격려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사실 포럼을 운영하는 지부들은 애써서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지부 동문들 뿐만 아



지난 9월3일 미주동창회 사무실에서는 한홍택 브레인 네트워크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브레인 네트워크 사업 논의 회의가 열렸다.

나미주 전지역에서 관심있어 하는 동문들도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아쉬운 경우가 많았다.

한홍택 박사는 이와 관련 “각 지부의 포럼을 미주 동창회 네트워크 아래로 끌어들이면 전체적인 홍보를 도와줄 수 있다”며 “기획과 준비는 자체적으로 하되 홍보가 됐든 감사 설비가 됐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선에서 협력을 하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동창회 사무총장과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지내며 ‘동창회 전문가’가 된 성주경(상대) 동문도 이날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그는 “많은 이들이 관심있어 하는 내용과 주제를 잘 선택해 명성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대한다면 동창회 이벤트로 받은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 장학금은 실질 도움되는 규모로

노명호 회장은 제법 큰 규모의 장학금을 제안했다.

노 회장은 “장학은 동창회의 기본으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티도 안나는 소액으로 나누기 보다는 각 분야별로 인재를 엄선해 최소 1만달러씩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년에 5만달러의 장학금을 조성하고 장학위원회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각 분야에서 1명씩 5명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 회장은 “회장에 취임하고 난 후 여러 선배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의미있게 돈을 쓴다면 기꺼이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많았다”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잘 선발해 그 돈이 그의 성장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동문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정빈 박사는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받은 서울대인으로서 장학금 수여자를 꼭 동문 자녀로 국한하지 말고 커뮤니티에 오픈하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호석 사무총장은 “각 지부별로도 장학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지부 회장께서는 미주동창회가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공동으로 장학금을 운영하고 수여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다”면서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 좀 더 구체적인 장학위원회 운영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방학때 2-3주 정도 동문 자녀 10~20명을 함께 서울대로 보내 한국과 서울대를 경험하며 한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 동문 DB 구축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

이와 함께 미국내 동문들은 물론 2세대까지 총망라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기로 했다. 미국내 동문끼리 서로 소통하고 한국서도 접속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미국에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정관계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문들이 상당수다. 노벨상에 근접해 있다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동문자녀들까지 서울대 네트워크에 포함하면 그 영향력은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진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심재호(공대 전자공학과, 75학번) IT담당국장을 중심으로한 TF팀을 발족할 계획이다.

노 회장은 “미주동창회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각 지부들과 함께 가는 동창회여야 한다”며 “각 지부장들에게 오늘 논의된 사항을 알리고 제안에 귀기울여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 바로잡습니다 = 8월호 동창회보 1면 ‘자랑스런 동문 2세 한데 모은 DB 만들자’는 기사에서 김용 닥터머스대 전 총장의 부친 고 김낙희 교수는 서울 의대가 아니라 서울 치대 동문입니다.

### 한홍택 교수는



나노 복합재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UCLA 기계공학과 학과장을 역임하면서 미국복합재료학회 학회장과 복합재료학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200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세계적인 연구소로 육성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부름을 받고 한국을 떠난지 43년만에 귀국해 KIST 원장을 맡았으나 ‘철밥통’ 교수들의 개혁 거부로 조국에 봉사하고자 했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지냈다.

### 김정빈 교수는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 연구원 연구팀장을 거쳐 1993년부터 UCLA 기계항공우주공학과에서 석좌교수를 지냈다. 유체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난류유동 분야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선구자다. 2002년 호암재단이 수여하는 호암상 공학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 모든 공학도의 꿈인 미 공학한림원(NEA) 회원으로 선출됐다. 김 동문은 미국과학정보연구소(IS)가 21개 각 분야별로 선정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연구자(HCR)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발명은 나의 일상... 팔순에 특허 따내



**김성봉**

(물리학과 59·시카고 거주)

김성봉 동문(물리학과 59학번)은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발명왕’으로 통한다. 1년에 한 두개 꼴로 기술을 개발해 현지 언론에 소개된 적도 있다.

“지금까지 특허를 목적으로 연구한 아이디어는 50개가 좀 넘을 것 같네요.”

이 가운데 특허를 낸 건 두 개다. 지난해 3월엔 ‘Locking Systems for Vehicles’ 기술을 특허(번호 10589721, 사진 참조) 냈다.

운전자가 차키를 자동차에 두고 내리면 경고음을 울리는 등 안전에 최적화된 신기술이다. 운전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주변에선 김 동문의 기술이 자동차 메이커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동문은 거의 매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냈으나 대부분 막판에 포기했다. 관련업체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지레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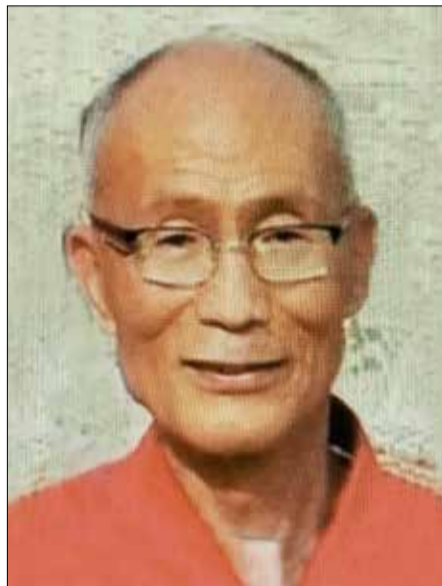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다음 아닌 자금 부족. 그래서 작년에 특허를 낸 기술도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특허 출원 후에는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데 자금마련이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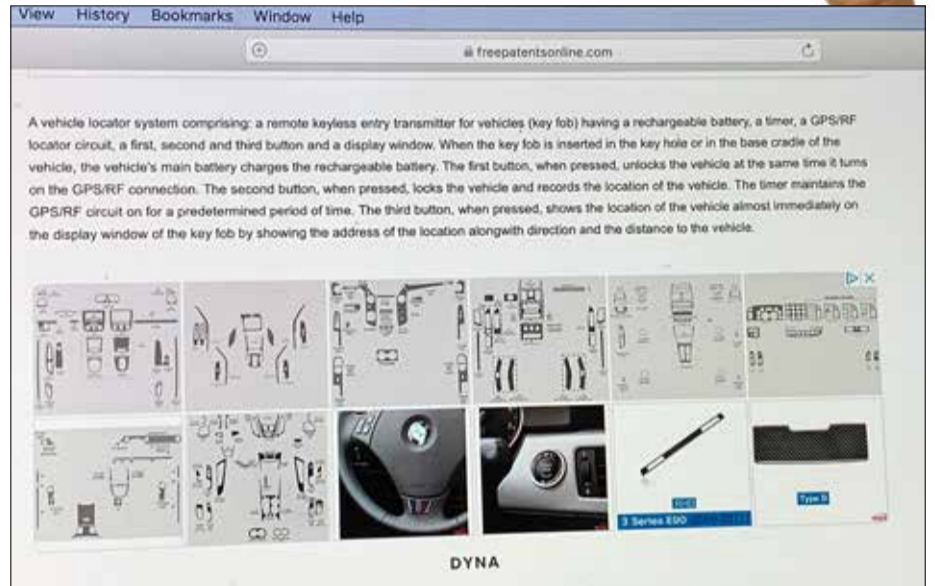
김 동문이 처음 개발한 기술은 자물쇠와 관련된 것이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도 상용화를 못해 지금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엔지니어도 아닌데 물리학도가 어떻게 기술특허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기술은 엔지니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관심을 갖고 개발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발명왕’으로 통하는 김성봉 동문. 그가 개발한 차 키를 차에 두고 내리면 경고음을 울리는 기술은 지난해 3월 특허를 받았다.



## 차키 두고 내리면 경고음 작동 직접 서류 작성해 특허 출원

## 1년에 한 두개 꼴로 기술 개발 시카고에선 ‘발명왕’으로 불려

그가 특허에 매달리게 된 데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관련 자료를 검색, 수집해가며 연구에 몰입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 무언가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것이 일상이 됐다.

김 동문의 고향은 평안북도 구성. 정주와 선천에 인접해 있는 곳이다. 해방 후 북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온 가족이 걸어서 월남해 서울에 터를 잡았다. 이불 한채와 손가락 7개, 그리고 팔뚝 한 통이 전부였다. 그 와중에 어머니까지 역병으로 잃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김 동문의 집념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실랑민이 된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김 동문이 미국에 온 건 1974년. 형편은 38선을 넘을 때와 비슷했다. 186 달러가 전재산이었던 것. 부부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조지 메이슨 대학에 동지를 틀었다.

교육학을 전공한 아내 박순자 여사는 메릴랜드주에서 일선 교사로 20여 년을 근무한 뒤 정년퇴직했다. 은퇴 후에는 시카고 한인여성회 회장을 지내며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등 커뮤니티 봉사에도 열심이다.

카톡과 전화로 취재를 마쳤지만 사진이 없어 문자를 보냈다. “선배님,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다음날이나 회답이 왔다. “화장실 고치느라 휴대폰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이 바람에 카톡을 못봤습니다. 미안해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아니, 플러머를 부르지 않고 직접 고치세요?” 이번엔 곧바로 회신이 왔다. “그럼요. 플러밍이 뭐 별건가요.”

평생 한 번도 힘들다는 특허를 몇 개나 냈는데 화장실 고치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였을 터.

‘Hitch Your Wagon to A Star.’ 김 동문 부부의 좌우명이다. ‘저 별에 당신의 마차를 매달아라, 곧 꿈을 크게 가지라는 뜻이다.’

당초 올해의 꿈은 대륙횡단이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쉽게 그 꿈을 접어야 했다. 대신 내년엔 특허기술을 달애 꼭 붙잡아 매겠다고 다부진 결의를 보였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또 파고들거예요.”

김 동문은 시카고 교외의 나일스에 아들 부부네와 함께 살고 있다. 21살이나 된 손자 노아를 돌보기 위해서다.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노아는 김 동문 부부에게겐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손자와 함께 산책을 하며 ‘겸손’을 배운다”는 부부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고 했다.

(동창회보 취재팀)

##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한 번도 모인 적 없이 카톡으로 만드는 뉴스레터

94 편집장, 2008학번 편집팀 카톡 회의, 공유 폴더로 제작

## 워싱턴 D.C. 에디토리얼 보드를 만나다

지난 8월25일 워싱턴 D.C.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주희(음대 89) 동문의 초대 뉴스레터 편집팀 카톡방에 들어갔다. 그날은 8월31일 발간되는 뉴스레터에 실을 기고문을 최종 정리하는 날이었다.

“오늘이 기고 데드라인입니다. 각자 부탁드린 분들께 팔로우업 해주세요.” 포성처럼 울린 이주희 동문의 한마디에 카톡방 동문들의 푹! 푹! 푹! 분주한 카톡 릴레이가 시작됐다.

“동문 소개 세 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추가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고상원)

“탱고 올렸습시다.” (이주희)

“추억의 사진 찍지는 제 마음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훈병 선배님이 보내주신 사진은 기획의도와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 제외했습니다.(손문일)

“업카밍 이벤트 중 산행 예고는 이미 지난 이벤트입니다. 제가 저녁에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영화 모임이 다음주 화요일이니 그것도 넣는게 좋겠지요.” (박문수)

“동문 소식이 비네요. 동문 소식 중 올릴 것이 있을까요?” (이주희)

지부 사정을 잘 모르는 나로선 보탬이 없애 슬며시 카톡방 문을 닫고 나왔다. 그렇게 몇시간이 흘렀을까? 카톡 메시지가 100개 넘게 쌓였고 다시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뉴스레터 내용을 수정하며 구글 클라우드 공유 폴더에 버전 7 최종본 PDF를 업로드했다는 얘기

미주동창회 26개 지부 중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내는 유일한 지부다. 그것도 무려 A4 용지 24페이지에 테니스, 탱고, 하이킹, 골프, 중창 등 지부가 자랑하는 다종다양한 동문회 활동 소식은 물론 새로 이사온 동문 소개에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담은 동문 기고글, 나이드신 선배들이 보내주는 학창시절 추억의 사진까지 읽을 거리가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뉴스레터다.

뉴스레터 제작을 위해 7명의 동문이 참여하는 편집팀, 에디토리얼 보드까지 꾸려져 있다. 편집장은 98학번 고상원, 편집위원에는 2004학번 손문일, 2008학번 박기현 등 여러 지부 동창회에서는 거의 만나기 힘든 ‘희귀 학번(?)’ 동문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워싱턴 D.C. 지부의 자랑인 젊디젊은 뉴스레터 편집팀을 만나봤다.

를 나누고 있었다.

뉴스레터 에디토리얼 보드가 꾸려진 건 지난해 7월 박상근 회장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다. 하지만 편집팀이 뉴스레터 제작을 위해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1년 넘는 동안 줌 미팅도 두어 번 했을 뿐이다.

SNS(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세대답게 편집회의는 주로 카톡으로 하고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저장된 파일은 누구나 들어가 편집할 수 있다. 다시 체크하다 사진 색이 칙칙하면 밝게 보정해 버전 8, 뒤늦게 빠진 기사를 발견하고 집어 넣으면 버전 9, 마지막으로 인터넷 주소 링크와 페이지 링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PDF로 올리면 끝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8월호 뉴스레터는 버전 10 최종판으로 마무리됐고 동문 750명에게 이메일로 발송됐다.

박상근 회장(법대 75)은 카톡 회의 중간중간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동

가 잘못됐음을 찾아내기도 했다.

“전에는 실을 내용을 구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젊은 동문이 편집장이 된 후에는 젊은 동문들이 관심을 갖고 글을 많이 보내와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박상근 회장의 자랑이다.

2000년대 학번 모임인 샬로수 동문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소개되면서 60~70대 학번 선배들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추억의 사진’ 코너를 만들었을 정도니 그가 자랑할 만도 하다.

이날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준 편집팀은 서로에 대한 칭찬 릴레이로 마무리도 훈훈했다. 이주희 동문은 고상원, 손문일, 박기현 동문을 ‘트로이카 드림팀’으로 소개했고 박상근 회장은 이주희 동문을 뉴스레터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는 ‘보석같은 존재’로 칭했다.

문 셋째 아이 출산일이 얼마남지 않았지요?” 라는 톱을 하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매의 눈’으로 서울대 동창회의 비영리단체 등록 번호(FEIN) 끝자리



**손문일은**

응용생물화학부 04학번. 2015년 박사를 졸업하고 2016년 1월부터 국립보건원(NIH)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NIDDK 산하 Laboratory of Biochemistry and Genetics 소속으로 효모(Baker's Yeast)의 프리온(Prion: 단백질의 Protein, 감염성의 infectious, 입자의 - on)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9월20일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고상원은**

공대 98. 2014년 MBA 공부를 하러 실리콘밸리 샌호세로 왔다. 공부를 마치고 전자제품 제조 서비스 업체 Flex에 들어가 매주 세계 여러나라로 출장을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전화를 하면 “제가 지금 비행기 안이라...” 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럼에도 뉴스레터 편집장을 맡은 것은 2017년 연고가 전혀 없는 워싱턴 D.C.로 이사왔을 때 처음 본 자신을 오랜 지인처럼 편하게 대해준 선배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이다.



**이주희는**

음대 89학번. 1996년 예술 경영을 공부하러 펜실베이니아주 카네기멜론 대학으로 유학. 지난해 9월 20여년 일해온 Ernst & Young LLP에서 IT Advisory 파트너로 은퇴했다. 지금은 fur babies들과 함께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살면서, 지난 20여년간 못해본 게으름도 피워보면서 가장 관심이 필요한 나 자신을 돌보며 지내고 있다. 동창회 활동이 너무 재밌어 침대에 누워 잠이 들 때까지 탱고나 테니스에 관한 비디오를 찾아보거나 관련 쇼핑을 하고 있다.



**박기현은**

외교학과 08학번. 2017년 8월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 도미. 미국 내에서 어떤 주체들이 언제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에 참여하고, 그 결과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다루는 정치경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동문회에서 좋은 선후배 분들을 만나 유학생들의 외로움을 달라고 있다.



# 배우고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지난 6월말 LA에서 열린 제30차 평의원 회의의 첫날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 각지에서 모인 동문들이 호텔에 짐을 풀고 참가 등록 접수를 마친 뒤 곧바로 열린 첫 행사가 세미나였다.

“아니, 세미나를 하려고 모인 분들도 아닌데 동문회 개막 행사가 세미나라니...” 평의원 회의 참가가 처음인 나에겐 상당히 인상적인 풍경이었다. 세미나 주제도 그리 대중적인 것은 아니었다.

텍사스 오스틴대 석좌교수인 황경순 동문은 ‘슈퍼컴퓨팅을 통한 첨단 신소재 개발 가속화’에 대해 발표했고, 신약개발기업 제노스코 대표 고종성 동문은 ‘암치료를 위한 정밀의학 어디까지 왔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나마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평론가 장소현 동문의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였다.

그런데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컨퍼런스룸에 앉아있는 동문들이었다. 짧은 휴식 시간을 빼고 세미나가 진행되는 3시간 가까이 동문들은 조용히 앉아 강연자의 얘기를 경청했다. 심지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질문까지 던졌다. 코네티컷에서 온 김창수(의대 54학번) 동문은 여든을 훨씬 넘긴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깨끗한 자세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에 나오는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 유붕이 자원방래면 불역락호아’가 절로 떠올랐다. 서울대 동문들은 배움을 즐긴다. 그래서 각 지부별로 단과대별로 포럼을 운영하는 곳이 대여섯 곳에 달한다.

지부에서는 가장 먼저 포럼을 시작한 시애틀 워싱턴 지부의 김재훈 동문(공대 72)은 “동문들이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동창회도 활성화되는데 그냥 만나느니 관심있는 주제를 정해 발표토론을 하면 의미도 있고 머리를 쓰니 치매 예방에도 좋다”며 “포럼은 지적 호기심이 많은 서울대 동문들에게 딱 맞는 동창회 이벤트”라며 강조다.

각 지부별로 운영하고 있는 포럼을 소개한다.



시애틀 워싱턴 지부의 SNU 포럼.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하던 포럼을 줌 화상회의로 대신했다.

## 시애틀, 남가주, 미네소타, 뉴잉글랜드 정기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포럼 운영

### 시애틀 워싱턴 SNU 포럼

워싱턴주 서울대동문회는 매달 둘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미 서부시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수준 높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시애틀 보잉 연구소에서 기술 임원을 맡고 있는 김재훈 동문이 주최하는 SNU 포럼으로 전 미주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시작했으니 벌써 13년이 됐다. 매달 지역 도서관 컨퍼런스룸에 모여 포럼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대면모임을 못하면서 줌 화상회의로 진행 방식을 바꿨다.

주제는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건강 여행 등 자유 주제지만 김재훈 동문이 과학기술 전문가다 보니 아무래도 과학기술 관련 내용이 많은 편이다.

지난 9월11일 열린 포럼 주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이 우리 미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인류의 삶이 방식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5G 무선통신 기술의 확대에 발맞춰 가상현실이 우리의 생활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가상현실은 직접 대면하는 대신 인터넷과 무선통신을 이용해 먼거리에서도 서로 소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상의 세계 혹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

상의 공간에서 소통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무선통신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쉐컴과 구글, 페이스북을 거쳐 현재 다시 구글에서 포스트 5G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황인수 박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김재훈 동문은 “동문들이 자주 만나려면 매달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1년 내내 피크닉을 하고 골프만 칠 수는 없지는 않느냐”며 “2시간은 강의를 하고 1시간을 토론을 하는데 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할 때 관심있는 주제의 경우 70명까지도 모인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 주제와 강사 섭외는 김재훈 동문이 맡아서 하는데 근래에는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젊은 강사들을 많이 부른다고 전했다.

### 뉴잉글랜드 포럼

뉴잉글랜드 지부는 올해도 세 번의 포럼을 개최한다. 첫번째 포럼은 지난 9월10일 서울에 있는 최병서(문리대 71) 동덕여대 명예교수의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이란 주제로 열렸고 두번째 포럼은 10월 7일 공대 00학번 동문인 권용찬 박사의 ‘한옥 이야기’로 이어진다. 저녁 7시30분에 모두 줌으

로 열린다.

최병서 박사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인간 자본과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해 인간 행동에 대한 경제학적 탐구를 문화예술과 접목시켜 영화, 미술 등의 영역을 경제 분석의 틀과 연계시키는 연구를 해온 동문이다. ‘영화로 읽는 경제학’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등 저서와 대중 강연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김유경 뉴잉글랜드 동창회장은 “강사 모두 서울대의 자랑스런 동문들이라 미주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강연 내용이 누구나 관심있어 할 수 있는 교양과 건강에 관한 것이라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누구에게나 오픈한다”고 소개했다.

강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snuane@gmail.com)로 신청하면 줌(zoom)링크를 받을 수 있다.

세번째 포럼은 내년 봄(날짜 미정) 신약개



지난 9월 뉴잉글랜드 포럼에 강사로 나선 최병서 동문.



# 불타는 배움 열정 ‘공부하는 동창회’



미네소타 지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동문회 활동이 거의 스톱되자 9월부터 매달 줌으로 학술 세미나를 열어왔다.



지난 6월말 LA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김창수(왼쪽) 김건진(아래) 원로 동문들이 세미나를 경청하는 모습. ‘공부하는 서울대 동문회’를 한 눈에 보여준다.

발기업 제노스코 대표 고종성(사대 75) 동문이 건강에 대해 강연하기로 예정돼 있다.

## 코로나 시대 대면 모임서 화상회의로 교양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에 오픈

### LA 아크로 인문산책 공대 남가주 SC 포럼

남가주 동문들은 매달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오후 6시30분~9시30분 LA시간) 아크로 인문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2014년 6월에 시작해 오는 9월21일 열리는 김지영 동문의 ‘영미문학’ 강좌가 벌써 334회째 강연이다.

코로나 전에는 가주대학교 강당을 빌려 동문 40여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진행했으나 코로나 이후 줌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강연 비용 마련을 위해 최소한의 회비를 내는 회원제로 운영해 왔으나 줌 화상회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인문산책이라는 세미나 이름 만큼 문학, 역사, 인류학, 음악, 미술 등 다루는 내용도 다양해 9월28일에는 ‘약탈 문화재의 세계사’를 강연한다. 해양생물학과 73학번인 이원의 동문이 강사로 시리즈 네번째 강연이다. 전공은 아니어도 평소 관심을 갖고 공부해 전문가 수준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자랑하는 동문들이 주로 강사로 나서고 있다.

아크로 인문산책을 처음 시작해 지금껏 이끌고 있는 김홍묵(물리 60학번) 동문은 “등산 동호회 동문들과 산에 가서 한시 읊고 한문 이야기 하다가 함께 당나라시를 공부해보자고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동문들이 해박한 식견에 자신들

의 삶과 생각을 녹인 강연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대 공대 남가주동창회도 지난 14일 이정훈(기계 85) 서울공대 교수를 초빙해 ‘식물과의 대화’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반도체기술을 이용해 식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이 기술이 쓰이는 상업적 서비스, 그리고 미래에 가져올 혁신과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공대 남가주동창회(<https://snuaa-social.org>)의 포럼 관련 일을 맡아 하고 있는 한홍택 박사는 16대 미주동창회 브레인네트 워크 위원장으로 각 지부가 보내온 포럼 소식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해주고 있다.

### 미네소타 학술세미나



모친상으로 한국에 가셔도 동문들을 위해 줌 학술세미나를 연 윤성주 동문.

미네소타 지부는 코로나로 동문회 활동이 거의 중단되자 지난해 9월부터 매달 줌으로 학술 세미나를 열고 있다. 윤정식(농화학 86) 동문의 ‘팬데믹: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으로 박상욱(화학 91) 동문이 미국, 유럽 및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참여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월에는 외부 강사인 김한나 박사(숙명여대 89)를 강사로 초빙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정치권의 극명한 양극화와 그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강연을 들었다.

6월 강연자인 윤성주(동양사학 80) 동문은 ‘한시로 읽는 중국 방역의 전개과정’에 대해 강연했는데 모친상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도 동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줌으로 진행해 세미나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ACRO 인문산책 2021년 9~10월 ZOOM 강좌 및 독서계획			
ZOOM Link: <a href="https://us02web.zoom.us/j/81541235832">https://us02web.zoom.us/j/81541235832</a>			
문의: 310-292-2649 <a href="mailto:laacroforum@gmail.com">laacroforum@gmail.com</a>			
정기강좌: 매주 화요일 6:30 PM - 9:30 PM Los Angeles 시간 (한국 시간: 수요일 10:30 AM)			
특별초청강좌: 수시			
LA ACRO 인문산책 ZOOM 강좌 계획표			
9/7/2021	안경라	시문학: "시(Poem)의 숲을 거닐다"	특강
9/14/2021	(김홍묵)	"월요와 자별, BIAS, BY US (I)"	YouTube 관람후 토론
9/21/2021	김지영	영미문학: TBD	정규강좌
9/28/2021	이원익	약탈 문화재의 세계사(IV)	정규강좌
10/7/2021	안경라	시문학: TBD	특강
10/14/2021	(김홍묵)	"월요와 자별, BIAS, BY US (II)"	YouTube 관람후 토론



셰익스피어 야외극장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연극관람에 간 ACRO 인문산책 회원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16대 노명호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11대 김은종 회장(상대 59) 및 임원 일동**

방석훈(농대 55) / 지인수(상대 59) / 노명호(공대 61) / 김재영(농대 62) / 이종도(공대 66)  
 김병연(공대 68) / 성주경(상대 68) / 백옥자(음대 71) / 이상대(농대 80) / 강호석(상대 81) / 이경희(인문 83)





# 서울대·기자·박사 버리고 시골서 ‘자연인 생활’

**박혜운**  
(영문과 94)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언론 고시를 거쳐 일간지 기자가 됐다. 입사 동기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교육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시애틀에서 한 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 알링턴의 오래된 집에서 21세기 판 ‘월든’의 삶을 살고 있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94학번)를 졸업한 박혜운 동문의 이야기다.

그의 남편 김선우씨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조선일보 편집국장장과 주필을 지내며 1990년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김대중 전 주필의 아들이다. 김대중 전 주필이 워싱턴 DC 특파원을 하던 시절 그곳에서 태어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하고 동아일보에 입사해 12년 동안 경제 경영 분야 기자로 일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알링턴의 동네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로 일하고 고사리와 췌기 풀을 따서 나물을 만들고 빵가게에서 빵을 구워 손님을 맞고 있다.

물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밀을 갈아 빵을 굽고 세제와 비누도 직접 만들어 쓰는 거의 자급자족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의 체험이 담긴 책을 썼고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고 작은 실험일 수 있는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이메일로 보내는 구독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박혜운 동문이 최근 알링턴의 100년 된 집에서 40대에 은퇴한 남편, 두 딸과 함께하는 7년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을 담은 책 ‘숲속의 자본주의자’를 펴냈다.

왜 ‘자본주의자’일까. 이메일로 만난 박혜운 동문은 “내 삶을 실험하는 것이다. 그 실험에서 절대 바뀌지 않을 조건이 자본주의”



시애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알링턴에 거주하는 박혜운(왼쪽) 동문과 남편 김선우씨.

## 시애틀 인근 알링턴서 7년째 밀 갈아 빵 굽고 비누 만들어

##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다양” 책 ‘숲속의 자본주의자’ 출간

라고 했다. “이 외진 곳에서도 사회와 깊이 연결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건 자본주의 덕분임을 뺏속 깊이 깨달았다”는 것.

처음엔 친환경 농사를 지어 가까운 도시에 직판할 계획이었다. 음식다운 음식을 높이 쳐주는 미국인에게 통하리란 심산이었다. 번아웃이 왔으며 도시를 떠난 남편과 열심히 농사를 배웠다.

사슴이 그 계획을 망쳤다. 애지중지 티운 새순만 귀신같이 뜯어먹은 흔적을 보면 ‘살의에 가까운 적’이 가 들었다. 그런데 그 증오심이 생각을 바꿔냈다. ‘미워하며 사느니, 사슴처럼 살아보자’고.

“일단 몸이 편해요. 더 좋은 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버릇을 단박에 고친 거죠. 농약 쳐서 대량생산하는 농산물은 나

쁘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이 많은 인구가 굶어 죽거나 야생동물과 싸우는 것보다 낫겠더라고요. 살아남으려 안간힘 쓰는 자연의 아름다움도 알았죠. 그 일부인 저도 최선을 다해 살아남기로 했어요. 문명의 혜택도, 야생 블랙베리도 잘 이용하면서요.”

야생 채집이 근간인 식생활이지만 국수 뽑고 된장 담그는 밀과 콩은 자본주의의 생산성에 감사하며 저렴하게 사온 것이고, 아이들 생일엔 패스트푸드도 즐긴다. 코로나 19 이전엔 빵을 구워 팔았다. 자연발효만 고집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다르게 이스트를 넣어 만들었다.

넓은 집 수리, 머리 손질은 직접 하는 일. “모든 건 이 시대의 혜택과 우리만의 개인적인 결정이 합쳐진 것. 옛날 방식이라서, 현대적인 기술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자신만의 행복을 설계해서 행복한 것이다.”

20여 년 전, 영문과 전공수업에서 ‘월든’을 읽을 당시 박혜운 동문은 호숫가에 움막을 짓고 자급자족하며 산 소로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대신 ‘조화로운 삶’을 쓴 스코트 니어링 부부처럼 숲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무소유를 실천하며 살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다.

고교 2학년, 초등 4학년 두 딸이 기꺼이 그의 ‘실험’에 동참하고 있다.

“루소의 ‘에밀’에 나온 ‘자연의 교육’이란 아이가 타고난 본성을 사회 안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꽃 피우듯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타고난 본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거칠게 말하면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될 수 있고 취직 돼도 고민 끝이 아니란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자세를 길러주려고 해요.”

“아이와 놀고, 국수를 함께 만드는 모든 시간이 기회비용’임을 알기에, 더욱 ‘살아 있는 순간’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물과 소금 양을 맞추고, 밀가루의 촉감을 느끼고, 이야기를 나누던 경험이 무수히 쌓여 어느 날 완벽한 침묵 속에 손이 착착 맞아 국수를 만들어 냈을 때, 우린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걸 얻었음을 실감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벌겠다는 초연함엔 ‘믿는 구석이 있겠지’ 의심도 따른다. “빛은 없으니 풍요로운 썸”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10년 정도 치열하게 벌고, 모으고, 투자도 했어요. 저흰 돈 벌기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숨 막힐 정도로 열심히 벌고, 모으고, 그러면서도 모자랄까봐 두려워하길 멈춘 것뿐입니다.”

박혜운 동문은 지금의 삶을 과시하거나 자신처럼 살기를 권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니어링 부부의 완벽함엔 닿기 힘들었지만, 소로는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소로의 말처럼 ‘삶의 골수’를 맛보고 싶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우리 부부가 정규직을 그만뒀을 때, ‘그만큼 배웠으면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 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회 기여가 똑같은 모습은 아니죠. 제가 글로 전달하고 싶은 건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개인의 일상에 의미를 주는 사소하고 시시한 질문들요.” (박수진 기자)



들에서 일하는 박혜운 동문.



# 작은 섬에서 동문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 뉴잉글랜드 지부

### 블락 아일랜드 하이킹

연일 90도를 넘는 무더위가 살짝 숨을 돌린 8월 28일,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유경 음대 72) 소속산우회에서는 30여명의 회원과 가족, 친지들이 함께 로드 아일랜드의 블락 아일랜드(Block Island)로 하이킹을 다녀왔다.

로드 아일랜드 앞바다의 작은 섬 블락 아일랜드는 비치, 트레일, 절벽, 등대, 항구가 한데 어울린 아름다운 작은 섬이다. 로드 아일랜드 남쪽 Narragansett 해안에서 12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푸른 바다와 풍광이 아름다운 여름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는 섬이다. 특히 17마일에 이르는 해안선이 모두 공유지로 열려 있어 걷기 좋아하는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이날의 일정은 Narragansett 에서 페리를 타고 Old Harbor에 도착, 섬 북쪽에 위치한 Clayhead Trail을 3 마일 정도

걷고나서 벤으로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Southeast Lighthouse 와 Mohegan Bluff 를 돌아보는 코스였다.

Clayhead Trail은 갈대와 늦여름의 야생화가 어우러진 오솔길로 경사나 돌이 없어 누구나 부담없이 걷기 쉽게 되어 있었다. 시원



뉴잉글랜드 지부 동창회 산우회 회원과 가족 30여명이 지난 8월28일 로드 아일랜드의 블락 아일랜드에서 하이킹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절벽을 따라가는 트레일을 걷노라면 간혹 숲너머로 멀리 펼쳐지는 바다의 풍경이 멋지기도 한 곳이었다.

섬 남단에 위치한 등대는 절벽위에 지은 탓에 그리 높지 않으나 고풍스러운 건축양식이 멋졌고 미국 최초로 지었다는

offshore commercial wind farm이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볼만 했다.

높이 치솟은 흰 점토 절벽과 둥글게 깎인 자갈들이 펼쳐진 해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140여개의 나무 계단과 비탈길을 내려가야 한다. 쉽지 않은 코스인데 불구하고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이 많이 함께 하셔서 산우회 회원 다은 노익장을 과시하셨다.

돌아오는 길에는 이강원 (공대 66) 전 동창회장의 대접으로 seafood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하며 코비드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수고해주신 이 전회장께 감사패 증정식을 가졌다.

뉴잉글랜드 산우회는 2018년 김정선(문리 66) 전회장이 시작한 모임으로 그동안 보스턴 근교의 역사 깊은 명소나 산과 바다를 찾아 하이킹을 하며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해 왔다. 산우회는 동문 누구나 가족, 친지와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에 관심있는 동문은 <https://snuane.org/club>에 가면 그동안의 산행기록과 공지사항을 볼 수 있다.

글·사진 이경애(문리 73)

## 15대 동창회보 기념집 출판기념회

### 뉴욕 동창회 주요 임원 참석

서울대 미주동창회 '15대 회보 기념집' 출판기념회가 지난 8월 14일 롱아일랜드 맨하셋 소재 Pearl East에서 뉴욕 지역의 각 단과대학 회장, 골든 클럽 회장 등 전현직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신응남 15대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진구 9대 전 미주동창회 회장의 축사, 금영천 뉴욕지역 신임 회장의 격려사, 이강원 브레인 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의 인사말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선 또한 지난 6월 말 남가주에서 개최된 30차 평의원 회의 때 뉴욕 등 동부 지역에서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들에

게 상을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커네티컷주 지부 회장이며 아가페 선교회로 봉사한 유시영 동문에게 서울대 오세정 총장상을 전달했고 직전 뉴욕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한 조상근 동문, 여러해동안 컴퓨터 클래스를 이끈 양인회 동문에게 한국총동창회장상이 전달됐다.

신응남 전 회장은 지난 2년간 매달 발행해 온 동창회보를 한권의 기념집 (540 page, all color)으로 엮어 출간했는데 이에 금영천 뉴욕지부 신임동창회장은 "동창회보 기념집은 신응남 회장님과 임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기념집 출판을 축하했다.

Pearl East의 전통적인 12코스의 요리가 후식으로 마무리 될 즈음, 축하 시낭송회도 펼쳐졌다.



신응남 전 미주동창회장이 지난 8월14일 뉴욕에서 열린 15대 회보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삼가 명복을 빕니다

남가주 총동창회장 지낸 **임종문 · 손수웅** 동문  
(약대 51) (수의대 60)



임종문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장을 지낸 두 동문이 별세했다.

임종문 동문(14대 회장 · 약대 51학번)은 지난 8월 29일, 손수웅 동문(15대 회장 · 수의대 60학번)은 9월 4일 각각 세상을 떠났다. 임 동문은 향년 87세, 손 동문은 80세.

남가주 총동창회 측은 "전직 회장 두 분이 불과 1주일 새 유명을 달리하셔서 안타깝다"며 "더구나 두 분은 회장 직을 바통터치한 사이여서 더욱 가슴이 메어진다"고 추모했다.

임 동문과 손 동문은 회장 직을 그만둔 뒤에도 상임이사로 남아 동창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서울 반포에서 약국을 경영했던 임 동문은 1982년 이민, 사평센터와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해 성공을 거뒀다. 부부가 서울대 동문으로 미망인 문금숙 여사는 법대 출신이다.

한편 서울대 발전기금에도 큰 기부를 한 손 동문은 지난 2일 오세정 총장 오찬행사에 초청을 받았으나 참석을 못한 채 세상을 떠나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손 동문이 서울대 행사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17일 LA의 새누리교회에서 열린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 음악회. 병이 깊었는데도 콘서트에 참석해 1만2000달러의 기부금을 냈다.

이외에도 고인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등을 지내며 복음전파에 앞장섰다. 동부한국학교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2세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임 동문과 손 동문의 장례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손수웅



# 동문에게 배우는 탱고... 뒤통거리도 함박웃음

## 워싱턴 D.C.

### 탱고 클래스 소모임 인기 쉽게 배우며 친목도 다져

워싱턴 D.C. 지부 동문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협 속에서도 각양의 소그룹 동호인 모임으로 소소한 만남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정해 놓고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는 동호인 모임은 배움의 즐거움과 더불어 동문들과의 친목을 다지는 일거양득의 시간이다.

오늘은 시간이 갈수록 그 진지함이 더해가고 있는 '탱고 동호회' 를 소개하려고 한다.

마침, 지역의 잘 알려진 탱고 강사인 김량국 동문(사대92)과 연락이 닿았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탱고에 일가견이 있는 최원선 동문(공대 93)이 기꺼이 함께 클래스를 해주겠다고 승락해 일사천리로 모임이 진행되었다.

첫 날 모임은 이주희 동문(음대 89) 집에서 두꺼운 양말만 신은 채, 앞 뒤로 걷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모임부터



매주 한번씩 만나 탱고를 배우며 친목을 다지는 워싱턴 DC 지부 탱고 동호회원들.

는 지역의 댄스학원을 빌려 사용할 수 있었고, 탱고 슈즈를 신고, 탱고 음악을 들으며 점점 그 맛과 향기로 빠져들어 가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탱고는 단순한 춤 이상의 영혼이 깃든 춤이라 할 수 있다.

탱고는 남자가 리드를 하면 여자는 리드

에 따르며 춤을 춘다. 똑같은 사람이 같은 곡으로 같은 파트너와 춤을 추더라도 출 때마다 그 때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라 전혀 다른 동작이 만들어진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춤추는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탱고하면 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밀롱가

(Milonga, 탱고를 추는 장소)에서 연주되는 바이올린, 피아노, 더블베이스, 그리고 반도네온의 탱고 음악은 상상만으로도 깊은 사색과 향수를 불러온다.

어렵게만 알고 있던 그 춤 탱고를 이렇게 쉽고 맘 편안하게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배울 수 있을 줄을 누가 알았으랴. 더구나 약간의 선입견으로 터부시했던 이런 사교춤을 걱정 하나 없는 안전한(?) 분위기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천상의 기회라 아니 할 수 없다.

모임 참석자는 강사로 수고하시는 김량국(사대92), 최원선(공대93) 동문과 함은선(음대 77), 조경옥(가정대81), 한정희(미대 81), 박문수(공대82), 홍진수(자연대 84), 오재환(사대85), 강형석(공대86), 이우진(농대 86), 이희수(사대86), 이주희(음대 89), 황태윤(사대 91), 최선영(자연대 99) 등이 있다.

시종 심각한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김, 최 동문들의 모습과는 달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팔 다리를 원망하며 그래도 감미로운 음악에 따라 뒤통거리며 즐거워하는 동문들의 얼굴엔 끊이지 않는 함박웃음이 어진다. 글·사진 한정희(미대81)

# 1년 6개월만에... 간호대 동문들 '새로운 시작'

## 남가주

### 첫 대면 모임 활기 넘쳐 싱얼롱, 볼게임 등 즐겨 춤 북클럽 활동도 보고

지난 8월 21일 열린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회장 양수진) 모임의 주제는 '뉴 비기닝(New Beginning)'.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1년 6개월만에 열린 탄인지 '새로운 시작'을 자축하는 열기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모임에는 61학년부터 95학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고루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장소는 양 회장이 살고 있는 라미라다의 단지내 클럽하우스. 결혼식 피로연을 방불케할 만큼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 분위기를 달궜다.

첫 프로그램은 양 회장의 빼어난 기타 반주에 맞춰 진행된 싱얼롱으로 모두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 상기된 모습이였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김영희 동문이 주



양수진 회장(맨 오른쪽)의 기타 반주에 맞춰 진행된 싱얼롱.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는 지난 8월 21일 1년 6개월만에 첫 대면 모임을 가졌다.

관한 북클럽 보고회다. 지난 3월부터 비대면 춤 모임으로 시작된 북클럽은 7명의 동문이 참여했다. 목표는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동문들에게겐 쉽지 않은 독서량이다.

지금까지 북클럽이 읽고 함께 토론한 책은 모두 세 권이다. '코로나 시대에 아이 키우기' (캘리 프레이던), '마인드 셋' (캐럴

드웨이), 그리고 '아직도 가야할 길' (스캇 팩)이다.

소아과 의사가 쓴 '아이 키우기'는 손주를 돌보는 동문들에게도 유익하다고 판단해 리스트에 넣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특히 관심을 끈 책은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가 쓴 '마인드 셋'이다. '고정 마인드

셋'과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유명인사들의 성취도를 비교 분석해 동문들의 공감을 샀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심리학자인 저자가 병든 자아의 치료를 돕는 한편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을 담았다.

북클럽은 앞으로 대면모임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는 818-970-4623(김영희).

이어 장소를 공원으로 옮겨 게이트 볼 게임을 즐겼다. 빨강볼, 노랑볼, 주황볼, 파랑볼 등 네 팀으로 나눠 진행돼 '집콕'에 지친 동문들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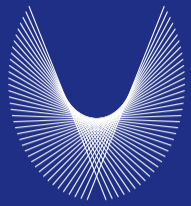
양수진 회장은 "앞으로의 모임이 오늘처럼 '뉴 비기닝'의 에너지가 넘쳐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 숫자는 학번).

조종자(61)·김영희(66)·양주명(66)·김수향(68)·김정애(69)·박혜옥(69)·이종묘(69)·박상주(70)·박선희(70)·이영현(70)·박정우(74)·이호진(74)·임헌진(74)·장근숙(75)·이안순(78)·양수진(80)·지윤정(91)·한향림(95).

글·사진 이호진(74학번)





##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든든한기부 모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울대학교가 든든한 기부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는 탁월한 연구자들과 신진 연구자들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기부'는 세계적인 연구 수준에 근접해 있는 연구자들을 지원하여 한국인 최초의 노벨 과학상 수상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기초 학문을 육성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한국 발전과 미래를 위한 서울대 연구자들의 꿈의 사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YouTube**



든든한 기부 홍보동영상 내레이션은 특별히 이순재 배우 (서울대 철학과 동문)님이 재능기부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동영상은 유튜브 검색(든든한 기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바로가기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mailto:america@snu.ac.kr)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든든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DDH21-09]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입학연도(기수): _____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매월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일금 _____ 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a](mailto:kenneth@klgroup.cpa)  
 [LA]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mailto:america@snu.ac.kr)  
 [Seoul]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Fax +82-2-872-4149 E-mail [snuf@snu.ac.kr](mailto:snuf@snu.ac.kr)





김인중 위원이 만난 **기부자 스토리**

**최운태 동문(공대 61)**

## 은혜를 꼭 다시 갚는 후배들이 되기를

**18만 달러 수표 보내며  
매년 신입생 3명 선발해  
학생 필요에 맞게 지급**

“첨부한 18만 달러 수표는 서울대학교에 매년 3명의 신입생들에게 장학금과 책값으로 지불해 달라는 저의 기부금입니다. 서울대 공대의 기계공학과 (Mechanical Engineering) 신입생 1명, 서울대 공대의 신입생 1명, 그리고 서울대학교 전체에서의 신입생 1명 등 3명을 선발해 학생의 필요에 맞게 지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10년후 학사로 졸업하고, 혹은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다시 학교에 장학금을 반환하는 마음으로 기부의 전통을 이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찢어진 시대에 자랐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대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어디에 도움을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도 저는 그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장학금은 1등 학생들이 아니라 돈 없는 학생들에게 주세요.”  
메릴랜드주, 록빌의 최운태 동문이 지난 6월 수표와 함께 보내온 글의 일부이다.

###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돕자

최운태 - 가정이 매우 어려웠지만 어렸을 때 부터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꿈으로 삼았다. 경기고등학교를 거쳐서 그 꿈을 이루며 1961년 서울공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입학금은 가산을 통틀어서 다 다치는 수업료를 해결해야 했다.

“공대 정선모 교수님께서 매학기마다 사비를 털어 제 수업료를 내어 주셨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제 수업료를 감당해 주

셨습니다. 이때의 은혜와 감동으로 저도 훗날 가난한 자기와 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다짐했지요.”

그 교수님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 교수님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 다시 씨를 뿌린다.

미국유학은 뜻하지 않은 계기로 찾아온다. 군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하는 중에 시력이 너무 안좋게 나오자 담당 군의관이 입대불능 판정을 내리고 최운태의 뛰어난 점을 간파하며, “그 기간동안 미국유학을 해보라”는 권유를 한다. 최운태는 그 말을 명심하고 어려운 유학길에 다시 빈손으로 나서며 1966년 8월 미국땅을 밟았다.

### 박사학위 후 핵에너지 전문가로

미국에서도 가난과 역경의 삶을 꾸려가며 결국 코네티컷 대학(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기계공학으로 석사, 핵(nuclear) 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후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Columbia University) 케미칼 랩에서 포스트 닥을 계속했다. 유체역학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며 연구를 계속했지만 펀드가 여의치 않아 웨스팅하우스와 제네럴 일렉트릭(GE)에 취직해 근무 하게 됐다.

1975년에는 당시 조순탁 한국원자력 소장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시작과 함께 한국에서 일해달라고 요청을 해 와 한국에 갔지만 컴퓨터 시설등의 낙후로 지원이 힘들었고, 1976년에는 서울공대와 카이스트 교직으로 초청됐지만, 미국에서 새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서 이 인연도 맺어지지 못했다.

최운태 동문은 GE, 웨스팅 하우스를 거쳐 미국의 핵시설 연구소(US NRC)에서 16년간을 근무했다. 캘폴리 유니버시티 샌루이스 오비스포(Cal Poly Univ. San Luis Obispo)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아이디호에 있는 핵시설에서 일하다

가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그때 병원에도 입원하고 치료를 했지만 완쾌되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눈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정부나 관계기관들은 책임회피를 위해 치료나 보상을 꺼리더군요.”

### 기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동문은 핵연구소에서 은퇴했다. 미국 도착한지 56년이 됐고 한국에 나간지는 33년이 됐다.

목과 허리의 병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어 그리운 한국땅에도 갈 수 없었다. 그가 이루어야 할 한가지 소원 - 모교 서울대학교에 은혜를 갚고, 가난한 후배 학생들을 돕는 일.

최운태 동문은 서울에 남아있던 부동산(형과 공동소유)을 처분해 학교에 기부키로 했지만 33년간 한국에 가지 않은 미국동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건강도 악화되고 한국 친척들과의 의사소통도 잘 해결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의 도움을 받으며 부동산 매각과 자금 이관이 이루어져 미국에서 서울대학교로 18만달러를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가 미국에서 다닌 학교들에도 함께 기부금을 나누었다.

“인생은 짧더군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고국과 미국에 있는 3개 대학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 보(Bo)와 이 세상에 작별인사를 하고, 하나 남게 가기 전에.”

최운태 동문은 지난 9월초 어려운 목수술을 했다. 현재 재활 치료중이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곁을 지키고 있다. 기부금과 함께 그의 간절한 소망은 이렇게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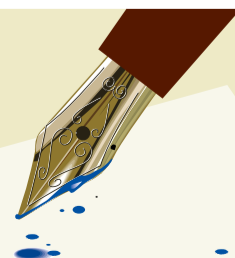
“With my love and respect for every human race, Sincerely.” - 진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나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18만 달러를 기부한 최운태 동문 부부.

##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세요.





# “이게 얼마만?” 40여 동문·가족 피크닉 ‘웃음꽃’

## 워싱턴 시애틀

### 투고 도시락으로 점심 먹고 한 명씩 돌아가며 소식 나눔

워싱턴주 지부는 지난 8월 21일 토요일 레드몬드(Redmond) 다운타운에 자리한 앤더슨 파크(Anderson Park)에서 피크닉을 가졌다.

2019년 여름 피크닉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송년회는 물론 신년 하례회 등 동창회 모임을 전혀 개최하지 못하다가 올해 드디어 피크닉을 열며 많은 분들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 이번 피크닉은 많은 토론을 거친 후 개최를 결정했는데 전통적으로 가졌던 BBQ/Potluck 대신 투고 음식을 준비했다. 시애틀 지역의 한인 식당에서 주문한 도시락은 음식들이 푸짐해 모두가 만족했다. 피크닉 후 많은 동문들이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 이었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동문 및 가족 포함, 41명이 참석했고 엄도승(의대



워싱턴주 동문과 가족 40여명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8월21일 피크닉을 갖고 코로나 시기 어떻게 지냈는지 정담을 나눴다.

54) 선배님부터 한서연(치대원 2017) 동무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석했다. 시애틀, 워싱턴주 동문들 중 최고령자인 장석주(의대 47) 선배는 잘 있다는 안부를 전내며 코로나 위험으로 참석은 못하지만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피크닉은 이명자(간호대 74) 회장, 임헌민(공대 84) 총무, 한우상(의대 83) 동문이 주로 이끌었으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동문들이 술선수범해 손을 거들었다. 원래 8월2주차에 해오던 피크닉을 올해는 3주차에 했는데, 한낮 온도가 화씨 65도 정도로

시애틀 날씨가 벌써 서늘해진 가운데 모두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올해는 게임 대신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나 개인적인 뉴스 등을 나눌 기회도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코너에서 동문마다 사람들을 박장대소케하는 코믹 대사가 많이 쏟아지면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각선미에 넘어가서 장가를 가게 됐다’ 거나, 서울 가서 선보고 부인을 맞은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 손주 보고, 미국 와서 아이들 키우며 재미났던 이야기들로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임헌민 총무의 익살스런 사회로 진행이 부드럽고 즐거웠다.

코로나가 곧 종식돼,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며,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자주 소통할 수 있는 SNS 모임 방법을 임원들이 모색 중이다.

글·사진 박승현(음대 85)

## 사진뉴스

# 남가주에 이탈리아 베니스 곤돌라가?

## 롱비치 네이플스섬

Naples는 LA 인근 Long Beach 지역에 연결된 3개의 작은 섬을 일컫는 말로 정확히는 Alamitos Bay에 위치해 있다.

주변 1마일의 구간에 조성된 3개의 섬은 운하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으며 지역 대부분의 명칭은 이탈리아 나폴리의 지명을 따와서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

Naples섬은 지난 1903년경 역사학자 Arthur M. Parson이 개발을 시작했고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캘리포니아에 재현하겠다는 목표로 운하로 나뉜 도시 곳곳을 다리로 연결하고 이를 통과하는 곤돌라를 운행시키는 개발계획을 추진해 17년 만인 1920년에 공사를 완공했다.

하지만 지난 1933년 발생한 롱비치 지진으로 인해 지역 일부가 파괴되어 이후 재단장 공사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다. 부유한 백인 은퇴계층의 고급 주택 단지를 조성돼 있으며 최근에는 할리우드 스타 조니 뎀과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한 ‘투어리스트(Tourist)’ 촬영장소로 사용돼 더욱 유명세를 탔다.

글·사진 김양희(음대 74)

석양을 배경으로 네이플스섬 운하를 돌아보는 곤돌라의 모습을 찍었다.



## ‘한뜻회’ 발족 이내원 동문 “이순신 인성 세계화 앞장”

### 워싱턴 D.C.



이내원 동문(사대 58학번)이 총무공 이순신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순신을 ‘역사 한류’와 ‘리더십 한류’의 중심에서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이 동문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이 사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 2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에는 이순신 세계 글씨기 대회를 열어 네덜란드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 등 9개국에서 한국학교 학생들이 참가, 30여명의 입상자를 냈다.

이와 함께 이 동문은 ‘서울대 미주동문 이순신 세계교육 한뜻회’를 발족시켰다.

이 동문은 한인 2세들이 총무공의 고귀한 인성과 자부심을 가슴에 새겨 당당한 대한의 세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뜻회 재정 지원은 연 100 달러. 문의: 이내원(703-725-8910) 이메일: naewonlee@yahoo.com. 사이트: www.yisunsinworld.com



# 죽을 고비 두 번 넘기고 팔순에도 스키 ‘쌩쌩’

**유석환**  
(치대 54·남가주)

**말기 위암에 대형 교통사고  
사경 해매다 기적적 생존**

**산에 눈만 쌓이면 스키장행  
산악 자전거, 스킨 스쿠버도**

팔순을 넘겼는데 스키를? 믿기지 않겠지만 픽션이 아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유석환(치대 54) 동문. 올해 초 이 같은 소문을 듣고 ‘설마, 뻥이겠지’ 하며 전화를 해봤다. 몇차례 걸었는데도 무응답.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놨다.

얼마 후 전화가 걸려왔다. “누구세요? 나, 지금 맘모스 스키장에 있어요. 산 꼭대기여서 아마 휴대폰이 안 터진 모양이네요.” 루머가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난달 처음으로 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상견례’ 를 했다. 군살 하나 없는 다부진 체격이었다. ‘정말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분이시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스키를 타러 다닌다는 얘기는 잘 안해요. 이 나이에,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겨울철엔 주로 스키동호회와 함께 즐긴다. 회원들은 버스를 대절해 타고 가지만 유동문은 절대 ‘동행’ 하지 않는다.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80대가 끼면 분위기가 썰렁해 질까봐. 그래서 혼자 운전해 간다.

“집에서 새벽 4시 출발하면 밤 8시쯤엔(유타에) 도착해요.” 부부동반이냐고 물으니 손사래를 친다. “우리집 사람은 스키 못 타요. 나 혼자 가요.”

유동문은 ‘아웃도어’ 광팬. 여름철엔 풍광 좋은 곳으로 캠핑을 떠난다. 뱀을 직접 개조해 침실까지 꾸몄다. 웬만한 야외 취사 도구는 다 갖췄다. “뱀을 몰고 산 중턱에 오르면 숨이 확 트이고, 살 것 같아요.”

뱀에도 운동기구가 실려있다. 산악 자전거다. 스키를 타려면 여름철엔 허벅지 근육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마운틴 바이크를 타며 몸을 만든다. 산에서 자전거 타다가 무릎이 깨진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그래도 포기는 없다.

유동문의 지난 삶도 스키 얘기 못지 않다. 해군 군의관 복무 후 첫 직장은 국립메디컬센터. 그런데 얼마 후 사표를 냈다.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데를 왜 그만뒀을까.

당시 단군이래 최대의 공사라는 경부고속도로가 뚫렸다. 그때만 해도 말이 고속도로였지 왕복 2차선에 불과했다. 차가 고장나



거나 사고가 나면 꼭 막히게 된다. 고속도로가 있으나 마나다.

형님과 함께 망해가는 정비업소를 헐값에 인수했다. 미군부대에서 중고트럭을 구해와 두들기고 용접해 토잉카를 만들었다. “어느 구간에서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우리 차가 가서 견인을 해왔어요.” 비즈니스 수완도 좋아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1974년 무렵 그 비즈니스를 접었다. 갑자기 ‘미국바람’ 이 불어서였다. 그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무릇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런 곳에서 한 번쯤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시골에서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시쳇말로 들어 먹었다. 선택지는 딱 하나. 한국으로의 ‘역이민’ 이었다. 두 자녀가 막아섰다. “미국에 올 때도 아빠 맘대로 오고, 갈 때도 아빠 맘대로 가시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먹먹했다. 짐을 풀었다. 그러고는 독하게 맘을 먹었다. 치과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 그때 나이가 42살. USC 치과대학에 도전장을 냈다. 삼수만에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메디컬센터를 그만둔 뒤 거의 20년만에 흰 가운을 입었다.

그런데 ‘호사다마’ 라고 했던가. 1985년 무렵이다. 일본에서 치과학회에 참석 중 배가 너무 아팠다. 마침 친구가 서울 대학 병원

암 전문의여서 전화를 걸었다. 당장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는 당일 입원했다. 진단 결과 위암 말기. 당시로서는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다. 귀국해 미국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차도

가 거의 없었다. 그런 와중에 딸이 명문 스탠퍼드에 합격하는 경사를 맞았다. 딸을 차에 태워 대학에 데려다 주고는 집에 돌아오면서 펄펄 눈물을 쏟았다. 이승에서의 삶이 거의 끝나가 졸업식엔 참석하지 못할 거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암 세포가 말끔히 사라진 것. 암의 공포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돼 이번엔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맸다. 골반이 네조각 나고 간이 파열되면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 열흘 넘게 지혈이 안되자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런데 또 다시 기적이 일어날 줄이야. 의사가 최후통첩을 내린지 불과 몇 시간 뒤 피가 거짓말같이 멈추며 자가호흡을 하게 된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긴 유동문은 3개월 후 스키장비를 신고 맘모스 산 정상으로 내달렸다. 사고 나기 전 예약했던 거여서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타고 싶어 스키 부츠를 신었다고 했다. 그때가 1987년. 이후 산에 눈만 쌓이면 스키를 타러갔다. 미국내 는 물론 유럽 등 전세계 유명 스키장은 거의 모두 섭렵했다.

스킨 스쿠버도 배워 바닷속을 누비기도 했다. 그 뿐이 아니다. 사진까지 배워 전시회를 열 만큼 예술성도 인정받았다.

한마디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의 전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터다. 유동문에게 ‘소확성’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침 식사는 꼭 내가 챙겨서 아내와 함께 먹는 겁니다.”

맘모스에서 찍은 사진을 몇 장 카톡으로 보내왔다. 붉은 색 스키 재킷에 헬멧을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 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는 걸 새삼 느낀다.

(동창회보 취재팀)





# 여자 둘이 차에 자전거 2대 싣고 알래스카로



이상실  
(간호대 88·남가주)

남가주에 사는 양수진(간호대 80), 이상실(간호대 88) 두 동문이 지난 2018년 7월 한달 간 차를 몰고 알래스카를 다녀왔다. 가는 길 오는 길, 주로 대자연 품에서 캠핑하며 하이킹과 바이킹을 즐기는, 말그대로 온몸으로 느끼는 여행이었다. 두 동문은 오랜 기간 남가주 동문 동호회 '철벽지'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이상실 동문이 4주간의 알래스카 여행기를 보내왔다.

몇몇 지인들이 묻는다. 정말 여자 둘만 가느냐고.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둘이 사귀냐고.

이런저런 의혹과 부러움의 눈길을 뒤로 하고 양수진(이하 수지니)과 이상실(이하 상시리)은 7월 2일, 4주간의 여행을 시작했다.

수지니의 Subaru Outback에 mountain bike(이하 MTB) 두대, 캠핑 기어와 쿡킹 장비, 음식, 개인품을 가득 싣고 2일 새벽 6시 알래스카를 향해 차를 몰았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알래스카를 반환점으로 오가는 길에 좋은 곳을 들러 캠핑하며 대자연을 즐기는 것. 자연스럽게 hiking과 biking을 위주로 계획을 세웠다.

첫 날은 12시간동안 운전, 또 운전. Salt Lake City 직전 Provo라는 곳에서 첫 캠핑을 했다.

다음날 Grand Teton National Park(NP)에 도착. 수지니가 download해 온 MTB 코스 중 한 곳을 골랐다. 눈자락이 아직 남아 있는 Grand Teton 산을 병풍으로 깔고 각종 야생화 부케로 양 옆을 장식한 길로 페달을 밟았다. 내려오는 single track은 또 어찌나 아름답던지. 살랑거리는 자작나무 숲 사이 좁은 길은 스릴 만점, 경치 만점.

4주간의 긴 여행이지만 예약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여정만 잡아놨을 뿐. 그래서 캠핑할 곳은 그때 그때 찾아야 한다.

세째 날, Yellowstone NP를 관통하여 나오며 가능한 곳은 MTB로, 아니면 차로 Gayser, hot springs를 서둘러 보며 나왔다. 일정을 서두른 데는 이유가 있다. Montana의 따님집을 방문 중이신 박혜옥/백정현 선배님을 찾아 뵙기로 했기 때문이다.

넷째 날은 백선배님과 Glacier NP를 가



뒤의 만년설산이 20,310피트의 알래스카 데날리 마운틴. 정상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관광객의 약 20% 정도만 산정상을 관망할 수 있다고 한다.

## 살랑거리는 자작나무숲 사이 좁다란 길 페달 밟고 내려오니 경지도 스릴도 만점

로 지르는 Going-to-the-Sun Rd.를 운전하여 Logan Pass에 이르렀다. 이 곳에 차를 세우고 Hidden Lake 트레일을 하이킹 했다. 대부분의 트레일이 채 녹지 않은 눈으로 덮여있다. 확 트인 평원 앞쪽 우뚝 솟은 몇개의 산봉우리들이 등산객을 압도한다.

다섯째 날, 두 분과의 아쉬운 이별을 뒤로 하고 오늘은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간다. Roosville port를 통해 간단한 심사를 거쳐 드디어 캐나다 입국. 입국 직후 들른 Visitor Info Center 직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하나 남은 Banff의 캠프장을 예약했다. 예감이 좋다.

아직도 밝은 저녁, Banff의 Two Jack 캠프장에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치고 저녁을 먹으려는 순간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다. 너무 순조로우면 재미없지. 비를 피해 캠프장



미국과 캐나다 경계석에서 공중포즈를 취하고 있는 저자.

내 공동 취사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 텐트 안으로. 밤새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로 불어난 물이 텐트 안으로 범람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잠을 설친다. 다행히 사계절 오렌지 호텔(우린 텐트를 이렇게 부른다) 덕분에 텐트 자리는 뽕송뽕송.

오늘은 Banff의 하이 라이트, Lake Louise에 가는 날이다. 역시 들던대로 아릅답다. 빙하가 흐르며 깎아 녹인 광물질로 호수는 우유빛 에머럴드 색깔을 띤다. 주변 만년 빙하를 두른 산자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2마일 정도 호수 위쪽으로 하이킹하여 도착한 Lake Agnes에는 최고도에 위치해 있다는 선전문구를 내 건 tea house가 있다. 차 한잔과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고 축축히 젖은 마음으로 산을 내려온다.

Banff NP 북쪽으로 인접한 Jasper NP에 도착하자마자 아침에 예약한 Hi Hostel에 짐을 풀었다. 주변 경관도 좋고 시설도 깔끔해서 결국 이틀 묵기로 한다. 호스텔은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과 정보와 사연을 나눌 수 있어 좋다. 한국에서 혼자 Banff, Jasper를 여행한 한국인도 바로 여기서 만났다.

여행 7일째, 오늘은 잔차로 Annette Lake 주변을 즐기기로 한다. 호수로 질러가는 코스를 정하고 숲길로 들어서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바로 그 사납다는 불곰과 딱 마주친 것. 앞장서서 달리던 난 아침식사 중이던 불곰과 눈이 마주친 순간 잔차를 유턴하며 수지니를 행해. "언니, 곰이야. 튀자" 놀랜 가슴을 진정시킨 후 잠시 숲속으로 들어갈때는 곰의 접근을 막기위해 목청 높여 노래 아닌 노래를 번갈아가며 질러댔다.

여행 8일째 접어드니 마음이 급해진다. 12시간을 달려 British Columbia 북쪽 접경에 있는 Stone Mountain 안 Submit Lake 캠프장에 여장을 풀었다. 오는 길에 스피드 티켓도 한 장 선물로 받았다. 다음 날 아침 호수 주변 트레일을 간단히 하이킹하고 차에 올랐다. 알래스카 가기 직전에 있는 Destruction Bay를 목표로 출발했지만 도중에 만난 Liard Hotspring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나그네의 피곤함을 풀어 준 자연 유황 온천은 예기치 않은 여행길의 황재다. 결국 Whitehorse라는 타운에서 캠핑을 한다.

내일은 드디어 알래스카로 들어간다. 여행 10일째, 미국 입국 심사대에 선 것이다. 내리 달려 오후 7시 조금 넘어 Fairbanks에 도착했다. 피 많이 쏟아지는 비로 캠핑은 포기하고 Hostel에 묵기로 한다.

항상 이층침대가 있는 호스텔. 그런데 이 집 이층침대, 오르고 내려오는 게 고난도 암벽타기 수준. 한번 올라가니 아침까지 절대 못내려온다. 내려 올때 하마터면 낙상할 뻔... 휴우, 여기서 다칠 수 없지. 아직도 20일을 더 가야하는데.

다음 날은 거친 국경길을 넘어 오노라만 신창이가 된 차와 bike rack을 닦고 조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 bike rack을 조이기 위해 bike shop에 갔는데. 아뵐사, 약 6000마일을 달려 오는동안 rack이 느슨해져서 직원이 살짝 당기니 맥없이 빠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온 것이 불가사의하다는 듯한 직원의 표정.

수지니 집에 두고 온 연장, 하지만 어떻게 든 rack을 조이는 special tool을 찾아야만 한다. Fairbanks의 웬만한 hardware store는 다 가봤지만 맞는 연장 찾기는 실패, 결국 철사와 테이프를 칭칭 감아 고정한다. 제발 집에 갈때까지만 버텨다오.

11일째 오후 3시에 Denali NP(국립공원)의 visitor center에서 얻은 정보로 앞으로



# 대자연서 캠핑하고 MTB 타며 ‘행복한 한 달’

〈산악자전거〉

이틀간의 계획을 잡고 어제 예약한 공원 내의 Denali Mountain Morning Hostel에 체크인. 자전거로 주변 탐색에 나섰다. 일단 자전거가 있으니 기동력이 좋고 차로는 갈수 없는 구석구석을 돌아다닐수 있다. 물론 걷는데 보내는 시간을 1/3쯤 절약할 수도 있고 말이다.

저녁은 와인을 곁들인 부대찌개로 푸짐하게 먹고 hostel을 끼고 도는 creek 옆에서 우렁찬 물소리를 배경음악으로 밤 11까지 캠프 화이어! 나, 알래스카의 여름과 사랑에 빠질것 같아...

12일째, 오늘은 Denali를 발로 느껴 보는 날. Savage Alpine trail과 Savage River Loop를 연이어 총 6마일을 걸으며 저 멀리 20310 ft(6190m) 최고봉을 걸눈질 해본다. 북미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에 걸맞게 자존심도 보통이 아니다. 구름을 스카프 삼아 마치 “나 쉬운 봉우리 아니야” 하듯이 당채 시원한 자태를 드러내지 않는다.

13일째, 전날 예약한 Denali 국립공원이 운영하는 8시간짜리 버스투어에 오른다.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지역 안으로는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투어 버스는 Denali 최고봉을 볼 수 있는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알미운 구름은 산꼭대기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Denali NP를 방문객의 30%만이 최고봉의 꼭대기를 볼수 있었다고 하는 가이드의 말에 위로를 삼을 수밖에.

투어를 마치자마자 앵커리지로 출발했다. 비소식도 있고해서 Ingra House라는 호스텔에 들어갔다. 동두천 미군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백인 청년이 의외의 친절을 베풀며 자전거 두대를 번쩍 들어 우리 방 창가에 척 올려준다. 그런데 이게 화근. 철부지는 밤에도 달리고 싶었던가. 난데없이 자전거 하나가 자고 있는 수지니에게 돌진, 다행히 둘 다(수지니와 자전거) 다친 곳은 없다.

14일째, 앵커리지 시내를 잠시 둘러보고 동양마켓이라는 곳에 들러 떨어진 한국 음식들을 채워서 Seward로 향했다. 9번 Seward Highway,



알래스카 입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이상실(왼쪽) 양수진 동문.



자동차 랙에 달아놓으면 도난 당할까봐 게스트하우스 방 안 창틀에 모셔놓은 자전거.

## 데날리 국립공원 잔차로 구석구석 누벼 해안절벽 온통 덮은 빙하 풍경에 압도돼

무척 아름다운 길이다. 가는 길에 현지인의 추천으로 Exit Glacier trail을 하이킹 한다. 낮은 야생화들에 정신을 빼앗길 즈음, 갑자기 탁 트인 발밑에 산 위에서 아래까지 옆질러진 우유처럼 거대한 빙하 한덩이가 널부러져 있다.

빙하까지 내려가보고 싶은 마음에 발길을 옮기다 보니 트레일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결국 빙하로 내려와서 직접 밟아보고 얼음동굴도 보고 신이 났

푸르스름한 얼음덩어리가 해안절벽을 온통 덮어 버리고 간간히 천둥치는 소리를 내며 빙하 조각이 바다로 무너진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몇 년 전부터 빙하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압박이 드러났다고 한다. 우리가 무심히 파괴하고 있는 자연, 이 멀리까지 그 영향이 과급되어 다시 우리를 향해 비수의 양감을 하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16일째, 캐나다를 거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첫날이다 하루 만에 알래스카를 지나 캐나다로 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 국경 90마일 전 Tok이라는 곳에서 캠핑하고 캐나다로 들어가기로 했다. 17일째, 오늘은 Watson Lake까지 650마일을 달려야 한다. 내일부터 3일간 숙박할 곳을 예약해뒀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달려줘야 착오가 없다. 그런데 거리 계산상의 착오로 내일 15시간을 달려야 예약한 숙소에도 도착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저녁시간은 가까와지는데 인터넷이 터지는 곳을 찾을수가 없다. 나오는 타운마다 인터넷이 안되어서 조금만 더 하며 간 것이 그만 밤 12시 반까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캠핑장도 못찾고 저녁도 거른 채 천상 차에서 자게 생겼다. 적당히 후미진 곳에 차를 세우고 앞 의자를 최대한 넓혀 침낭을 덮고 자는 수밖에. 이렇게 우린 첫 노숙을 하게 되는구나.

18일째, 불편하게 잤으니 일찍 깰 수밖에. 6시 조금 넘어 출발한다. 아침식사라도 해 먹을 장소를 찾는 중, 말만한 무스 한마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 나오는게 아닌가. 간발의 차이로 대형사고를 간신히 피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며 rest area에 차를 세웠다. 피크닉 테이블에 급조로 상을 차려 뜨거운 누룽지로 빈 속을 달랜다.

오늘은 biker들의 천국길이라는 37S (Cassiar Hwy)를 달린다. 양옆 우거진 숲을 따라 왕복 2차선의 아기자기한 국보급 국도다. 정말로 많은 자전거 여행객들이 캠핑장을 신고 자동차 여행객보다 훨씬 행복한 표정으로 페달을 밟고 있다.

내일은 2010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인 Whistler로 들어간다. 그동안 캠핑으로 고생한 우리를 위해 Whistler에는 좋은 호텔을 예약해 두었다. 우리의 여행도 벌써 3분의 2 지점으로 내닫고 있다. 벌써 아쉬움이 가슴 밑바닥에서 차오른다.

Whistler에서는 뻑뻑했던 여정과는 달리 럭셔리 컨셉으로 잘 쉬고 잘 먹어 에너지 재충전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태평양을 끼고 달리는 PCH 1번으로 내려 오며 바닷가 풍광을 만끽하며 꿈같았던 한 달의 여행을 마무리했다.

좋은 여행은 좋은 사람과 좋은 여행지도 중요하지만 여행하는 동안 나를 둘러싼 우주의 모든 기운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느냐도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 기운이 어긋나면 사고도 나고 다통도 일고 행복도 뺏긴다. 좋은 기운과 운이 여행 내내 함께 하여 내 버킷리스트 하나를 완수하게 되었다.

### 이상실은

간호학과 88학번. 1999년 도미해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보건학 석사, 이후 지금까지 LA에 거주하면서 틈만 나면 집꾸러 떠나는 즉흥여행이 취미. 요즘은 고전, 인문학 책에 몰두하고 있다.





# “오, 마이 사이언스!” ... 양자역학이 귀에 쪽쪽



**정승욱**  
(수학과 84·남가주)

코로나 덕분(?)에 집콕 생활을 시작한 후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유튜브의 재발견이다. 뭘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보면 대부분 다 찾을 수 있다. 물론 모든 걸 다 제대로 찾을 수 있지는 않다. 어떤 종류는 아주 쉽게 찾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집중력이 있어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보통 두어번 정도 더 놀라게 된다.

처음엔 “와~~ 이런 대단한 정보들이 있다니!!” 라고 감탄하게 되고, 그 다음엔 그 정보들이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걸 알고 “아니 난 그동안 뭘 했길래 이런 것도 모르고 지냈을까” 라고 살짝 자책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그 동영상의 조회수가 BTS의 신곡뿐만이 아니라 MBC 뉴스데스크에 비해서도 한참 작다는 걸 알아채고 나서는 애써 나의 무식이나 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스스로 합리화 하는 나를 다시 발견한다.

어찌어찌 하다가 어느날 ‘월말 김어준’이라는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고, 그중 과학코너에서 박문호 박사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의 하이라이트편을 듣는 기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튜브에 ‘박문호박사’라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수많은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동영상들의 목록을 봤다는 얘기임) “와, 이건 최소한 삼년이상 아니 평생 함께할 만한

공부(?) 거리” 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호기심을 가진 이들 중에 아직도 그들의 관심 항목에 ‘박문호박사’가 없다면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라고 권하기 위해서다. 늘 그렇듯 사실과 서론이 많이 길었다. 우선 과학에 관한 얘기를 소개하는 나의 얘기는 사실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나는 그냥 내 생각과 느낌을 얘기할 것이니 결코 내 얘기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란다. 하지만 원본 강의 내용은 과학 그 자체이다.

박문호 박사의 십수 년간의 강의 중 아주 일부분만을 겨우 구경한 소감이긴 하지만,

## 코로나 ‘집콕’ 최대 수확은 유튜브의 재발견 평생 공부거리 ‘박문호 박사’ 강연을 듣다

나는 이세상의 많은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찾은 느낌이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알아 나갈만한(이해할만한?) 것 같았다.

반백년 이상을 숨쉬고 살아온 요즘(내 나이에 대해서 요샌 늙었다고 하면 맞아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생생하다고 하기에는 여기저기 제법 닳고 낡았다) ‘깜박’ 뭔가를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다. 모든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빈도가 제법 많다. 삼십년 이상 함께 지낸 와이프와는 “그게 정상이야, 자연스러운거야~~” 라고 서로 위로하며 넘어가지만, 그래도 웬지 찝찝하다.

고스톱이라도 자주 쳐야 하나 아님 손가락 발가락 잼잼이라도 계속해서 소뇌를 자극시켜야 하나 등 아직은 낮은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박문호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당연히 여기에 인용되는 설명은 내가 보고 들은 내

용이다. 하지만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잊지마시라~)

사람의 기억은 하나의 장면(이미지)의 형태로 기록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의 장면들은 여러가지 해시태크를 가지고 다른 이미지들과 연결이 되면서 스토리의 형태로 기억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낮동안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정보들은 밤(낮에 자도 된다)에 잠을 자는 동안 정리 정돈 되어서 임시저장소가 아닌 제대로 된 기억의 저장소에 보관된다고 한다. 뇌의 해마 부분을 스쳐 지나 가는 수많은 정보(오감 + 육감)들이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기억의 저장소에 잘 살아(?) 남아

있으려면, 그 각각의 장면들에게 여러가지의 해시태크와 강한 인상(감정)을 덧붙여 놓아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프리웨이에서 운전하고 있다가 옆에서 추월하는 빨간색 오픈 벤츠 스포츠카에 대머리 아저씨와 금발의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마존 프라임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고를 봤다고 하자. 이런 정도의 강한 인상을 남기는 장면은 아마도 거의 한평생 기억될 것이다.

사람의 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0세를 지나면 치매 증상이 시작된다고 한다. (들은 이야기 임) 그리고 치매의 증상을 보이기까지는 약 1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내생각임) 본인의 치매 증상의 발현을 순연시키고자 한다면 뇌가 기억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장면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태깅하고 감동을 덧붙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내생각임)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뇌과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박문호 박사의 과학 강의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서 없지만 내가 느꼈던 부분들을 하이라이트처럼 쓰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제일 처음 감동을 받은 장면은 물리학에 대한 강연이었다. 대부분의 ‘석학’들이 “만약 이해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한거” 라고 하는 바로 그 어렵다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줄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 둘 숫자만 셀 수 있으면 되는 중학생 수준의 수학 실력으로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호방함에 빠져 강의를 계속 들었다.

현재의 우리 인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37억년의 우주탄생의 과정부터 시작하여 암석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은 물론이요 역사와 종교 그리고 인문사상까지 모두 다 연결하여 공부하여야 하고 “암기” 하여야 한다고 외치는 박문호 박사의 한마디는 바로 “오 마이 사이언스!!” 이다.

많은 동문들께서 좋은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 정승욱은

수학과 84학번. 석사학위도 받았다. 2003년 골프버디(골프용 거리측정기) 전문회사 (주)데카시스템을 창업해 전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2006년 미국에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CEO를 맡아서 미국 시장을 개척했다. 한국 코넥스에 상장했고 2018년 골프존에 경영권을 매각한 후 과학과 종교,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탐구 활동을 하며 제2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 뇌공부 열풍 불러온 뇌과학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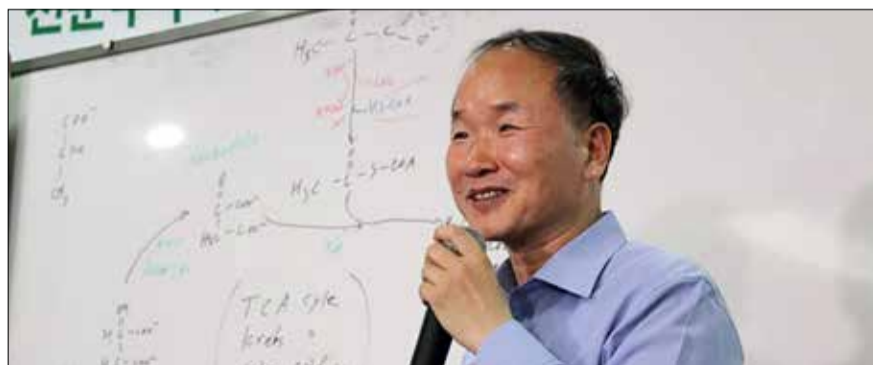
### 박문호 박사

박문호 박사는 서울대, KAIST, 불교 TV, YTN 사이언스 등의 강연과 저술을 통해 대한민국에 뇌공부 열풍을 불러온 뇌과학 전문가다.

박문호 박사는 2008년 뇌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은 ‘뇌, 생각의 출현’을 시작으로 2013년 뇌의 기능과 작용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탐구한 ‘그림으로 읽는 뇌과학의 모든 것’, 2017년 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한층 깊은 내용을 담은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를 펴내면서 ‘뇌과학’ 3부작을 완성시켰다. ‘뇌, 생각의 출현’은 2008년 올해의 책에 선정됐고 ‘그림으로 읽는 뇌과학의 모든 것’은 그에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을 안겨줬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수여하는 대



한민국과학문화상을 수상한 그는 시민 자연과학 학습모임을 만들어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 4시간씩 특강을 하면서 ‘대중의 과학화’에 매진해 왔다.

박문호 박사는 삶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뇌 공부를 필수로 꼽는다. 뇌를 알아야 자신의 감정 흐름을 알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녁은 안돼요. 우리 코비 밥 주러 가야해요”

## 팬데믹 ‘집콕’ 장기화에 반려동물 찾는 사람 급증

“죄송합니다. 우리 ‘코비’가 집에서 기다려요. 밥 주러 가야됩니다.”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동창회보 제작 회의가 끝나자 이호진 동문이 맨 먼저 일어섰다. 동창회 총무국장을 맡고 있어 인쇄와 발송 등 회보 뒷바라지는 거의 모두 이 동문 몫이다. 시간이 늦었으니 간단히 저녁식사라도 하자고 권유했지만 몹시 서두르는 듯해 말할 수도 없었다.

대체 ‘코비’가 누구길래. 이 동문은 74학번이다. 그래서 처음엔 ‘코비’가 손주이름인줄 알았다. 누군가가 한마디 했다. “아니, 자식은 부모가 챙겨야지 왜 할머니가 손주 밥까지...”

그러자 이 동문이 계면쩍어하며 말문을 열었다. “사실은 우리집 강아지 이름이 ‘코비’예요.” 이 동문의 ‘사이다’ 발언에 모두 빵 터졌다. 하루의 피곤함이 싹가시는 듯했다.

이 동문 가족은 코비(Kobe) 브라이언트의 광팬. 지난해 1월 헬기 추락사고로 아깝게 유명을 달리한 프로농구 LA 레이커스의 수퍼스타다.

이 동문이 기르는 견공은 ‘코비’로 발음되지만 영어로는 ‘Kobie’다. b와 e 사이에 i를 넣어 여성명사화한 것. 이 동문의 순발력과 재치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쏟아졌다. “역시, 학교는 좋은데 나와야 해.”

이 동문의 ‘코비’는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이다. 손녀딸처럼 애지중지 키운 ‘금지옥엽’이라고 할까. 금으로된 가지와 옥으로 만든 잎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몸이다.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코비’가 쫓쫓 굴고 있을테니 좌불안석이었던 것이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관련서류를 챙기고는 일어섰다.

최근들어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60대 이후의 노년층에서 두드러진다.

시니어들은 대부분 사회에서의 역할을 거의 모두 끝내 이제 더이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녀들은 장성해 가정을 이뤘거나 독립해 집을 썰렁할터.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에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 시기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돌보다 보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삶에 활력이 넘친다. 곁에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기 마련이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간 ‘집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자 애완견 키우기 붐이 일어난 것이다.

회보 편집회의에서도 동문들의 애완견이 화제가 됐다. 유기견을 입양할 요량으로 애니멀 셸터를 찾았으나 허탕을 쳤다는 얘기도 나왔다.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 유기견이 동이 났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인터넷에 선 강아지 한마리가 2,000~3,000 달러를 훔가하는 등 졸지에 귀하신 몸이 됐다.

요즘은 ‘펫 테라피(pet therapy)’가 의 학계에서도 조명을 받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의 암센터에는 애완견 봉사자들이 거의 매일 출근하 다시피 한다. 항암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다. 불안과 걱정, 공포에 사로잡힌

환자들도 애완견을 보는 순간에는 얼굴에 미소가 흐른다. “오구오구~우 쭈쭈쭈~우!” 쓰다듬고 안아주며 어쩔줄 몰라한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펫 테라피’는 더 주목을 받는다. 배우자와의 사별 후 우울증을 애완견을 키우면서 극복한 사례, 재통부리는 강아지 덕분에 대화가 늘면서 서로 사이가 좋아진 부부. 잘 키운 강아지 하나가 열 자식 안 부러울지 누가 알았겠는가.

밥 때가 되면 일찍 귀가해야 하고, 틈이

날 때마다 놀아줘야 하며, 주기적으로 씻겨줘야 한다.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하루 5,000~8,000 보 걷기는 보통이다. 운동량이 많아져 다리 근력을 키울 수도 있다.

그 뿐이 아니다. 견주들끼리 소통도 강화된다. 공원 등지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이웃들간 만남의 장이 열린다.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주민들과 어울리다 보면 새로운 사교활동도 할 수 있다.

몇해 전엔 주인과 애완견이 접촉하면 서로 옥시토신(oxytocin)이 분비된다는 연구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옥시토신은 사람과 사람의 신체적 접촉이나 간단한 바디 터치에도 분비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흔히 행복 호르몬, 사랑 호르몬, 치유 호르몬 등의 별명으로 불린다. 애완견을 만지기만 해도 옥시토신이 ‘뽀뽀’ 솟는다고 하니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겠다.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키보드나 스마트폰에서의 만남이 더 많은 현대인들에게 옥시토신이 크게 부족할지 모른다.

“이번 주말엔 ‘코비’와 함께 5마일 하이킹을 갈 겁니다. 옥시토신을 듬뿍 받으면 나눠드릴게요.” 이 동문의 밝게 웃는 모습에 옥시토신이 벌써 세포 곳곳에 스며든 느낌이다. (동창회보 취재팀)



### 토막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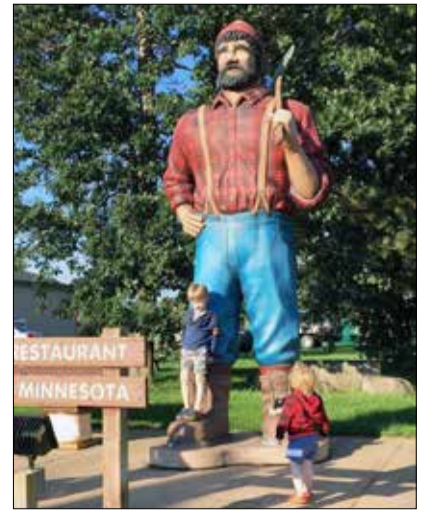
## 폴 버니언과 서울대

미네소타는 동네마다 물을 끼고 산다. 크고 작은 호수가 무려 1만 개가 넘는다. 이곳 초등학교생들에게 왜 호수가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고 물으면 열의 아홉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짐짓 그것도 모르느냐는 표정을 지으며, “그거야 폴 버니언(Paul Bunyan)이 만든 거잖아요.”

버니언은 수퍼 거인. 집체만한 도끼를 어깨에 둘러맨 나무꾼이다. 발 걸음을 땔 때마다 땅이 움푹 꺼져 이곳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됐다고 한다. 대체 발이 얼마나 크길래. 이곳 아이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

버니언과 관련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전해진다. 눈 깜빡할 사이에 도끼 한 자루로 80그루가 넘는 나무를 잘랐는가 하면 미시시피강에서 로키 산맥에 이르기까지 나무들을 죄다 베어내 대평원을 만들었다는 등등.

버니언이 미네소타를 넘어 미국의 아 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계관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공이 컸다. ‘폴의 아내(Paul’s Wife)’란 시가 대중의 사랑을 받은 것. 전설에선 버니언이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프로스트가 이 작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폴(버니언)을 벌목 캠프에서 밀어내려면/ “폴, 아내는 어머신가” 한마디만



물으면 됐지/ 그러면 그는 (화를 내며) 종적을 감췄다네.”

버니언에게 ‘아내’는 대자연의 넉넉함과 생태계의 질서를 의미할 터. 그러니 아내에 대해 묻는 것 자체가 그녀의 가치를 의심하고 훼손하는 행위 아니겠는가.

시대적 배경 또한 큰 몫을 했다. 제 1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는 국제사회에서 한낱 변방취급을 받던 미국을 일약 세계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렸다. 땅이 큰 나라, 힘이 센 나라. 무엇이든 크고 높은 것은 미국을 상징했다. 뉴욕 맨해튼의 빌딩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치솟고, 폴 버니언의 동상도 곳곳마다 높다랗게 세워졌다.

무엇보다 폴 버니언의 미네소타는 서울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1955년부터 8년여 동안 이른바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시행돼 수백명의 동문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아 미네소타에서 공부했다. 프로젝트는 주로 농학, 공학, 의학 등에 치중됐다. 이 덕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폴 버니언과 미네소타에 감사를...





홍경삼  
(문리대 61)

#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살래?

세 번 물음 끝에 들었다 “당신이 원하면”

오래 전에 “다음 생에도 지금의 배우자와 사시겠습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남자는 15% 미만, 여자는 10% 미만만 “네” 라고 답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까? 생각해 보고 용기를 내어 집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대해 주었고 실망은 어느 만큼 시켰으며 만족할 만큼 사랑을 해주었던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염치가 따르는 문제인 것 아닌가?

선수를 쳐서 “난 다음 생에도 당신과 살고 싶은데 당신은?” 하고 물었다.

실망스럽게도 대답이 없다. 실죽 쳐다만 본다. 역시 내가 잘해주질 못했구나 하며 속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나의 실망스럽고 침울해하는 모습이 안되었는지 한마디 한다.

“난 다음 생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로 태어날 거야. 사람이 아닌,” 일단 내가 우려한 대답 “내가 미쳤어! 당신하고 또 살게!” 가 안 나와 다행이다. 인간이 아닌 새로 태어나 마음껏 날고 싶다면 밭지 않게 거절 의사를 비친다.

몇 년이 지난 후 못 쓸 병(유방암)에 걸려

서 고생하는 동안 정성껏 돌보아주었다. 발병 후 냄새를 못 맡아 음식도 내가 하고 항상 옆에 붙어서 병간호하며 좋아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집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사람 어찌 되면 난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정말 큰 일이다.

“그래 나를 위해서도 당신은 살아야만 해~” 이기주의자 같지만 속으로 그리 생각했다.

그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지~ 아직 우리의 삶을 즐길 시간이 많은데~ 함께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또 손주들은~~~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병든 집사람을 위해서 힘쓰다 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 닭살이다! 하고 말하겠지만 이 나이에 서로가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됨을 느끼게 된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다음 생에 나와 또 살 거야?” 하고 물었다. 의식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었고 정말 우연히, 예쁜 작은 새로 태어나겠다는 것 알면서도.

이번 대답은 의외다. 정말 눈물겹다. “저 말고 좋은 여자 만나세요. 난 음식도



2012년 10월 어느 날 칠순 잔치상 받으셔서 두 아들네 식구와 함께 찍었다. 맨 뒤 가운데가 홍경삼 동문 부부.

잘못하고 이렇게 병까지 들어서 당신 고생 시키는데..”

정말 심각하게 말을 한다. 미안함이 배어나오고 진심으로 날 위해서 하는 말 같다.

이런 당신이기에 난 다시 태어나도 또 함께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1,2학년 때 동요 가운데 “바닷가 모래밭에 어여쁜 돌 주워 모니~~(중략)~~맨 처음 찾은 돌 찾아 해매 다가 해가 저문다” 는 구절이 생각났다.

다시 시간이 흘러 1,2년이 지난 며칠 전에 다시 물어보았다. 왜 그렇게 자꾸 물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여간 궁금했나보다.

“다음 생에도 나와 함께 살 거야?” 3개월 전에 쓸개 제거 수술을 해서 그런지 이번 대답은 완전 의외다.

“당신이 원하면~ 그건 완전히 당신 하는데 달렸지~”

쓸개가 빠진 대신 남편에게 흠뻑 빠진 여자로 변했다.



박재은  
(미대 63)

# 내려 놓고 관조하며 보내는 나날들

코로나 휴식기 몰랐던 세상의 현상들 공부

저 멀리, 푸른 여름 하늘에, 하얀 구름 조각들이 온갖 형태를 이루며 짝 깔려 있다.

하늘에 시시각각으로 펼쳐지는 구름 화면! 자연은 계절 따라, 시시각각으로 시를 만들어내듯, 하늘에 끊임없이 장엄한 구름 화면의 장관을 펼친다. 물기 머금은 여름 하늘에, 회색 톤으로, 온갖 기이한 형태로 만들어진 구름 화면의 장관!

뜨겁없이 얽은 구름 막이 생기더니, 모호한 형태를 형성하다가, 뚜렷이 그럴듯한 괴이한 모양의 뿔을 가진 커다란 토끼 같고, 날개를 가진 커다란 물고기 같기도 한, 온갖 상상속의 형상들이 형성되어 잠깐 머물다가, 조금 이동하듯 하다가, 스스로 흩어져 없어 진다.

우주 만물이 연기법인, 원인과 결과의 우주 운행 법칙에 의해 형성 됐다가 성, 주, 과, 공의 우주법칙으로 잠깐 머물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한다. 만물의 영장, 신령한 존재인 인간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지, 수, 화, 풍)의 기로 형성된 육신을 가지고 인연따라 잠깐 태어나 또 하나의 생명체의 형태인 사회구조 속에 구성원으로 얽혀 일정 기간 살다가 생을 마친다.

모든 생물이 생의 절정에 도취해 있는 한 여름! 들판에는 개구리, 메뚜기, 뱀, 잠자리 등 온갖 생물이 생의 절정을 즐기고 어제 다녀온 우체국 가는 길 하이웨이 길 옆에는 개망초가 자라고, 온갖 여름 풀꽃들이 만발해 있다.

어느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작은 공원에 흠리스인 듯한, 멀쩡해 보이는 젊은 백인 남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오가는 행인들, 곧 끝날 줄로 기대했던,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세상은 아직도 혼란하다.

유튜브 미래학 강의에서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강의를 들었다. 분명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 김새를 느낀다. 그토록 힘들게 살아왔던, 황량하고 천박한 인간사회구조가 그저 지나가는 에피소드처럼 사라져 없어지고 세상 사회 구조가 개선돼 아름다운 인간 정신을 지키며 살수 있는 좀 더 살기좋은 사회 구조가 될런지? 불과 10년전 \$300 였던 rent가 지

금 \$2500가 된 원인은 어디서 오는걸까?

부대끼며 치열하게 살던 생의 전쟁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잠깐 휴식상태가 되어 그토록 치열하게 씨름해오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한발짝 물러나 모든 일을 되돌아보고 관조하며 나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TV nature에서 보는, 잡아먹고 먹히는 자연 생태계같은 인간세상 생태계를 보도하는 TV news를 보는데 흥미를 가지게 됐고, 유튜브에서 우주, 철학, 인간의 미래학, 4차 혁명 등 가치로운 강의를 듣기도 하며,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현상계를 공부하며 안목을 넓히고, 자기성장을 하며, 나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김해암

(의대 52·코넬 와일 의대 부교수)

# 아프간 사태를 미국·북한 교섭 기회로

## 미국 정치력과 군사력에 대한 고찰

공교롭게도 2차 대전 종전 일인 8월 15일 경에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정부가 무너졌다. 더 이상의 동족 상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국외로 피신했다. 우연인가? 또는 어떤 의미를 담은 계획적인 작전이었나?

탈레반 대표단이 지난 6월 북경을 공식 방문했다. 그 일행이 무엇 때문에, 누구의 초대로 갔는지는 몰라도, 분명 그들의 방문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탈레반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수궁이 가는 바 있다. 아프간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전쟁도 없이 무너진 카불 수도권에 이상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왜 미국의 정보망은 그렇게도 미약했나?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정보국이 아프간은 8개월, 적어도 5~6 개월은 더 지탱하리라 보았다는 것이다. 왜 이런 차질이 생겼을까?

나는 미국의 군사력 저하에 기인한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매버릭 대통령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대혼란을 겪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냐, 미국 헌법을 준수하느냐 하는 등 군 지휘관들이 양당 정치에 치이면서 명령 계통이 고르지 못했을 것은 짐작이 간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나는 본다. 또 한국과 북한 대 미국 교섭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 미국의 전초 기지로서 한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비용을 5배 가까이 올리려 했다. 그 이유는 미군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수준이 떨어질 것이니 세금 내듯이 내라는 억지를 부렸다.

이에 동조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해결했음은 치하해야 할 일이다.

한반도의 문제를 흔히 주변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도 모르게 잠재해 왔기에 남북한은 무엇을 원하며, 왜 원하며, 어떻게 이루어 보겠다는 자국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소신이 서있는지를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의 통일을 원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미국은 한반도를 동서양 대국들이 맞대

는 경계로 지금도 보고 있다. 사실 상황은 틀림없이 그러하다. 그러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로 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미국은 알카에다 테러 그룹을 추적하여 아프간에 갔지만, 결국에는 민주 자유 국가로, 다시 말해서 현대적 식민지로 만들려고 시도 하였다가 실패했다. 새로운 국가 형성을 위하여 20년이라는 세월을 군비와 경제 지원을 해왔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철수함으로써 실책을 마감하려 할테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 가기 힘들 것이다.

아프간 사태를 보며 남북한이 현 정치 체제를 고수 하면서 통일이라는 과제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모델을 생각해 보면, 북한 존재의 핵심이 핵 위주의 방어 체제에 있다고 보면, 비핵화가 경제 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 논리다.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이 되면 핵이 필요 없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남북한이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야 한다. 기회는 지금이다. 미국이 왜 아프간을 잃었는지 고찰하면서 생각을 돌이킬 때는 지금이고, 남북이 협상에 들어가면 유리하지 않을까 한다.

둘째, 남한의 통일 기전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정책을 따르는 현상 유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 생각하는 가운데 독창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치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남한은 여러가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외교적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미국이나 중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계 비핵화 협정에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일본과 더불어 핵무장을 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외교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서로 유리하게 교섭하고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한반도가 평화로운 지역으로 발돋움할 조건들이 갖춰져 있나를 생각할 때 2가지 큰 옵션이 있다. 하나는 비핵화를 기본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길이요, 둘째

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영구 중립국을 선언하고

북한 핵무기 동결을 약속하는 방법이다. 알아둘 것은 강대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중립 국가로 만들어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하는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쟁취하는 길 밖에 없다. 핵무기를 가졌다고 못한다는 법도 없다.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다.

미국의 형편을 보자. 아프간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시키려고 20년을 경제 및 군사 원조를 해주었으나 자립을 못하고 무너졌다. 이런 사태를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나?

되기 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인 즉 군인의 훈련과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미국은 근자에 군의 편성에 고충을 겪어 왔다. Me too 현상과 여성 군의 차별 대우, 성폭행이며 성희롱의 성행 등으로 사기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동성애 군인의 권리, 성적 선택의 자유화 등 문제가 군의 사기와 전투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때에 한국이 반세기 이상 국민 개명 제도를 고수해 왔고 군사 총독을 겪어온 경험을 살려 미국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글을 쓴다.



20년 전쟁을 끝내고 아프간을 철군하는 미군의 마지막 비행기가 지난 8월30일 카불공항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첫째로 미국의 군사 전술에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간다. 정보팀의 오산도 있겠지만, 전술 면에서 심각한 연구와 준비가 없었던 것 같다.

오랜 점령군으로서의 고충이며, 실전에서 경험이 없는 젊은 군인 때문이라기 보다 군의 질이 약해지고 의욕을 상실한 데서 오는 폐단이라면 군인의 사기와 능력을 높일 방법을 구상했어야 했을 것이다.

둘째로, 국력을 재평가 할 수 있겠다. 미국 사회는 변해 가고 있다. 백인을 위주로 하는 문화에서 다문화, 다민족 사회를 구축하면서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현실에서 군인들의 사기는 진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셋째로, 전쟁은 무기의 우수성으로 좌우

미국을 한국의 지성인들이 도울 뿐 아니라, 한반도 사태를 수습하고 발전 시키는 기회도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새로운 세계는 강대국들이 나누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국가의 대소, 국력이나, 인구의 비례 없이 어떻게 서로 돕고,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데 있다면 새 시대에는 영세 중립국들이 많이 생겨, 그 힘을 모아 강대국들이 경제를 독점하고 봉쇄를 맘대로 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보다 적극적인 외교와 동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관계를 남한은 미국과 펼쳐 내야 할 때가 왔다고 보고,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때에 현실에 부합한 외교를 할 수 있는 정치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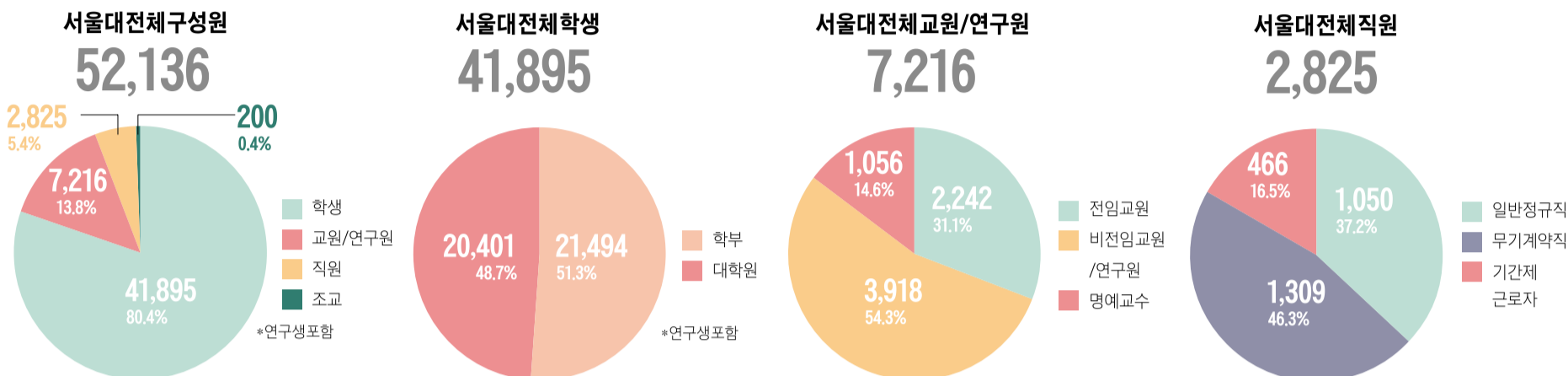


# 여학생 비율 학부생 36.5%, 박사 43.5%

기준일 2020. 10. 01

## 서울대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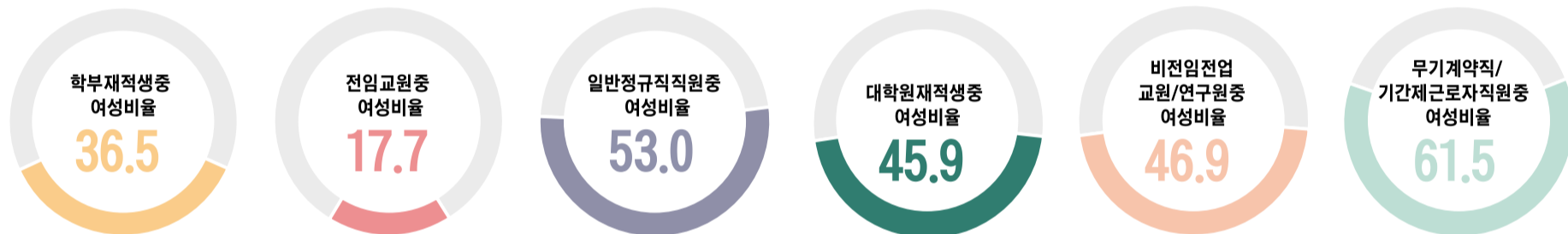
(단위: 명)



기준일 2020. 10. 01

## 서울대 구성원의 성별 비율

(단위: %)



모교 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전화숙)가 다섯 번째 연례보고서인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20(이하 보고서)’을 6월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모교 구성원의 다양성 현황을 성별, 직급, 국적, 사회경제적 조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분석해 재학생의 대학 생활 지원과 교원 및 교직원의 일·생활균형 지원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보고서는 ‘3개년(2021~2023) 양성평등 조치계획(이하 3개년 계획)’의 전문을 특집으로 수록해 눈길을 끈다. 3개년 계획은 지난해 7·8월 두 달 동안 위원회와 교무처가 협력해 양성평등조치계획TF를 운영하고, TF팀에서 제안한 초안을 교무처가 학내의

견수령을 거쳐 수정한 것이다. 전화숙(컴퓨터공학79-83)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보고서는 그동안 여성 교원 임용비율 확대와 의사결정기구의 참여 확대, 대학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꾸준히 제안해왔다”며 “3개년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앞으로 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칙 제6조 2조항(교원 채용의 양성평등)이 신설되면서 2021년부터

10년간 여성 교원의 목표 비율을 제시하는 표가 추가됐고, 이에 따라 3개년 계획에는 목표 비율 달성을 위한 계열별 여성 교원 목표 비율과 함께 주요 보직 및 주요 위원회의

여성 교원 목표 비율도 설정됐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수록됐다. 계열별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여성 교원 임용 목표 비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학과(부)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

도록 독려, 여성 교원 비율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는 것. 양성평등 임용 추진실적에 따른 ‘보상체계’의 도입 또한 추진할 예정이며, 여성 교원의 거버넌스 참여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주요 보직뿐 아니라 부학(원)장 및 본부 직할 부속시설의 장 등에도 여성 교원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전체 여성 보직 인력풀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이 17.7%, 주요 보직 중 여성 비율이 21.5%로 전년 대비 0.6% 및 3.8% 증가했으며 교원인사위원회, 학사위원회, 대학원위원회, 재경위원회, 학사운영 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서의 여성 참여율 또한 고루 증가해 전

### 전임교원 여성비율은 17.7% 3개년 양성평등 계획 수립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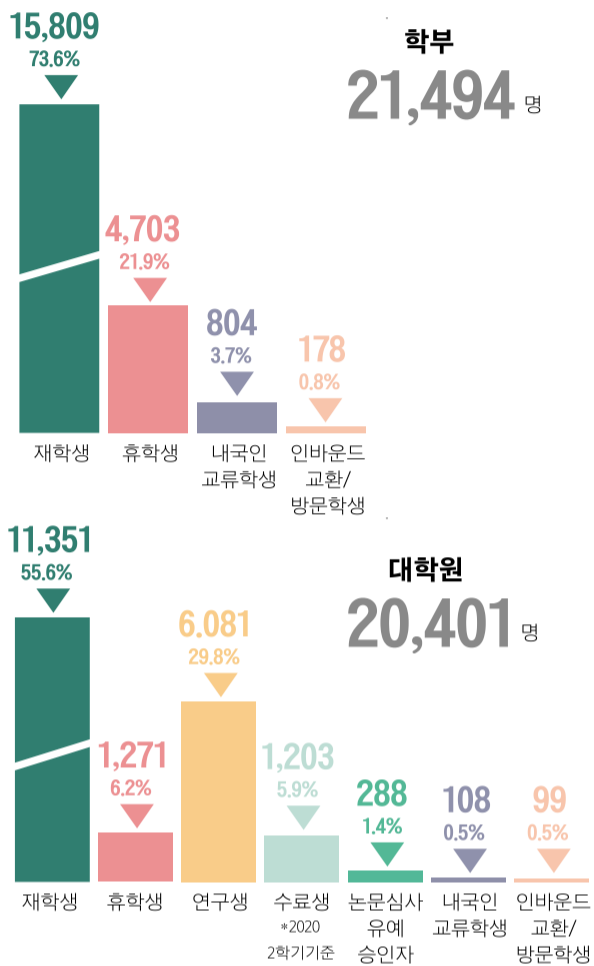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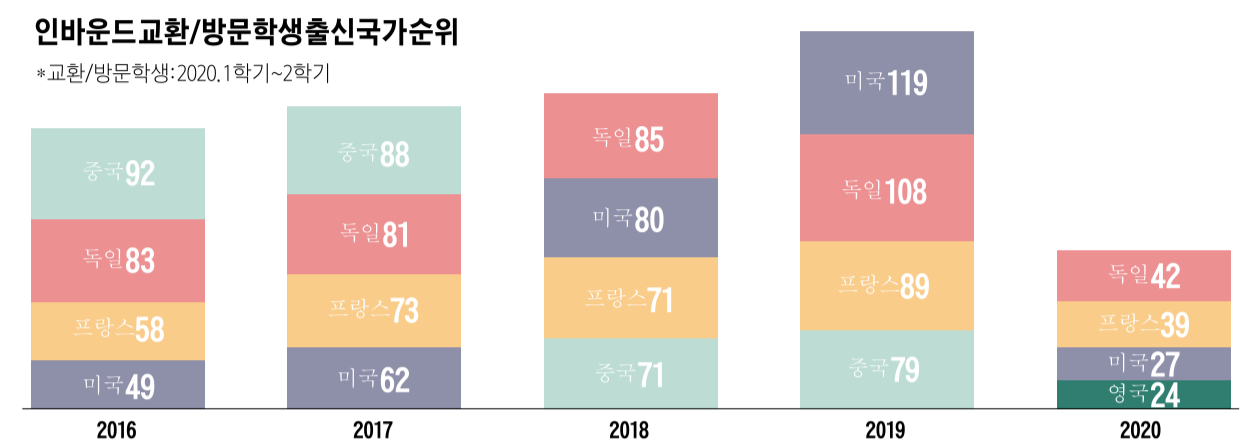


# 무려 69명... 국문과 대학원생 절반이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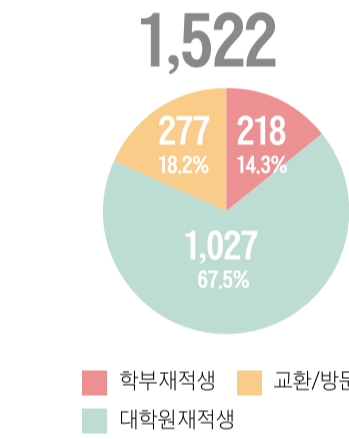
전체 학생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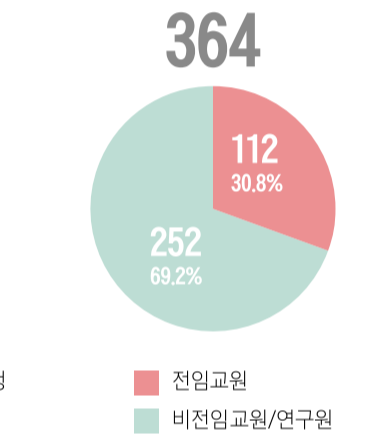
서울대 국제화 (단위: 명)



서울대전체외국인학생



서울대전체외국인교원/연구원



**123** 개국  
외국인학생의출신국가  
\*정규학생+교환/방문학생

**47** 개국  
외국인교원/연구원의출신국가

**168** 명  
아웃바운드교환/방문학생

**62** 명  
DigitalSNUintheWorld Programs참여학생

그래프=모교다양성위원회제공

체 평균 20.9%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특히 평의회의 경우 여성 참여율이 10%에서 16%로 6% 올라 괄목할 만했다. 주요 보직에서도 여성 교원의 진출이 활발해져 여성 학장·부학장의 비율이 32.7%로 집계돼 전년 대비 11.5% 급증했다. 반면 부속시설의 장은 15.0%로 전년 대비 0.8% 줄었다. 보고서는 양성평등 실현 및 확산을 위해 교원임기신축운영제도 도입, 모유수유 시설 확충, 여성동문 리더십 강연 시리즈 ‘서

여리강’ 운영 등 모교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우수 여성 인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여전히 지속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여학생 비율은 학부생 36.5%, 석사 47.1%, 박사 43.5%로 과거에 비해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연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20.1%, 공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12.0%로 나타나 이공계열 여학생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전임교원 중 여성 △타 대학 학부 출신 △외국 국적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비율을 의미하는 ‘다양성 임용 비율’은 2020년 33.6%로 나타나 2019년 32.1%에 비해 증가했다. 2020년 전체 신규 임용 교원은 109명이며 이중 여성은 23명으로 21.1%를 차지했다. 내국인 전임교원의 출신 학부 분포에서 조교수의 경우 서울대 학부 출신은 65.7%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으며, 최종학위 분포는 의·치대를 제외한 내국인 전임교원 중 국내 대학 최종학위 취득자가 28.3%로 나타나 전년보다 0.8% 늘었다. 비전임 교육중심 교원은 총 187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전업 강사는 50명, 비전업 강사는 145명 증가한 수치다. 비전임 연구중심 교원·연구원은 총 2039명으로 전년 대비 257명이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바운드 교환·방

문 학생 수가 2019년 917명에서 2020년 277명으로 크게 줄었다. 국제하게강좌는 취소됐으며,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SNU in the World Program은 디지털 교육으로 대체됐을 뿐 아니라 참여학생 수도 2019년 395명에서 62명으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규학위과정의 외국인 학생 수는 2020년 1245명으로 2019년 1269명과 비교할 때 감소 폭이 크지 않으며 국내대학 학점교류제도 역시 인바운드 912명, 아웃바운드 249명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휴학생도 늘어날 거라 전망했으나 예년과 큰 차이 없었다고.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 전면적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기숙사 이용 인원이 전년 대비 748명이 줄고, 등교하는 학생이 급감하면서 일부 구내식당이 휴점하거나 폐점했다고 전했다. 나경태기자

## 외국인은 재적 학생의 6%

서울대 통계연보 최신판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학생 수는 2,038명으로 재적 학생 3만4,072명 중 6%를 차지했다. 모교 캠퍼스에서 외국인을 목격하는 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지만, 국문학과 대학원으로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번 학기 재적 인원 총 115명 중 69명이 외국인 학생으로 과반을 넘긴 것. K 드라마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출신

국가도 미국·중국·영국·대만·터키·독일·프랑스·핀란드·스웨덴·라트비아·인도네시아·투르크메니스탄 등 18개국에 달해 강의실에 들어서면 그 풍경은 국제 학교를 방불케 한다. 이들은 국적도 성별도 취득 학위도 제각각 달랐지만, 한국 문학에 대한 사랑과 이를 바탕으로 본국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겠다는 포부는 똑 같았다.

**미주동창회 유지, 성장을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참여, 후원 요청**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1년: \$75 2년: \$150 후원금: \$1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16대 미주동창회 주소로 납부 바랍니다

SNUAA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총 모금액  
TOTAL

# \$909,926

〈모교발전기금 포함〉

##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134명)

### (D) 다이아몬드 이사 고교광선 (공대 57)

### (P) 플래티넘 이사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 (G)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박창규 (약대 59) 정상진 (상대 59) 이용락 (농대 48) 박영철 (농대 64) 정선주 (간호 68) 양남주 (명예이사 예정) 김정희 (음대 56) 김일영 (의대 65) 성낙호 (치대 63)

###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곽용길 (문리 59) 권기홍 (의대 60) 김경숙 (간호 68) 김기형 (상대 75)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성호 (법대 64)  
김재영 (농대 62)  
김태환 (의대 58)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중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흥표 (의대 58) (S)**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윤낙승 (의대 60)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 정재훈 (공대 64) (S)

정철용 (의대 55)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귀희 (미대 68) (S)**  
한호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민병곤 (공대 65)  
손석보 (공대 68)  
심영춘 (수의 64)  
전해경 (문리 67)

###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용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 64)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추재욱 (의대 57)  
고애자 (음대 57)  
강 애드워드(사대 60)  
이재량 (상대 61)  
최영태 (문리 67)  
최수용 (상대 55)  
김종용 (사대 51)  
윤종숙 (약대 66)  
김해암 (의대 52)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허선행 (의대 58)

###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 61)  
김용구 (공대 66)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최홍균 (공대 69)  
홍지복 (간호 70)  
이의인 (공대 68)

###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풍 (법대 60)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 워싱턴주

이희백 (의대 55)

###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정 태 (의대 57)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 조지아

김용건 (문리 48)  
**김태형 (의대 57) (S)**  
**김경숙 (사대 64) (S)**

###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S)**

###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 네바다

정상진(상대 59)(G)

###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 55)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신의석 (공대 53)  
김영우 (공대 55)  
신성식 (공대 56)  
김현영 (수의대 58)

###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 69)

###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종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S) 실버 이사  
\$5,000 이상

###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 “동창회 운영에 쓰세요” 1만달러 후원



정균희  
(의대 64)

신경정신과 의사인 정균희 동문이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에게 동창회를 운영하려

면 돈이 필요한데 뭐가 됐든 필요한데 쓰라며 1만달러를 보내왔다.

정 동문은 “의대 남가주 동창회장과 총동창회장을 지내며 의대에는 나름 충분히 기여한 것 같은데 그동안 미주총동창회에는 소홀했다”며 “단과대도 중요하지만 나이들면서 서울대 총동창회가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을 전했다. 특히나 자신 보다 더 선배인 노명호 회장이 동창회를 위해 이토록 애를 쓰는데 그동안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미주동창회

활동에도 이제는 참여하고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쥐야한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UCLA 교수직을 은퇴한 정 동문은 20년 가까이 진료해온 환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리로 일주일에 3일 정도 파트타임으로 UCLA와실로암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코로나 전에는 전문 분야인 노인건강, 한국적인 문화와 전통에서 기인한 정신적문제 등에 대해한 인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많은 강연을 했다. 정 동문의 아들 폴 정도 오렌지카운티에

서 신경정신과를 개업하고 있다.

정 동문은 한때 지인들 사이에서 서예가로 불렸다. 한국 서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고 일중 김충현의 마지막 제자로 정 동문은 고등학생때 전국휘호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국전과 신인전에도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정 동문은 “15년을 배웠는데 미국에 오는 바람에 그만두게 됐다”며 계속해서 서예에 매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 8월 후원자



참여 | 협력 | 영광

##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 -



김상찬  
(문리대 65)

문리대 지질학과에 입학하고 그 다음해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 당시 김신조가 북한에서 침투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질학과 대학원을 다니다 1973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즈음 Shell 석유회사가 한국대륙봉에서 석유매장량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한국대륙봉에는 석유매장량이 적어서 상업성이 없다는 보고를 냈고 막 석유지질학 공부를 시작한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는 Arco Petroleum Company를 거쳐 Rockwell로 옮겨서 Database Administrator로 37년을 근무하고 5년 전에 은퇴했다.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에는 90년대부터 참여했고 문리대 골프모임은 아직도 주관하고 있다. 2012년 남가주 총동창회 수석 부회장을 맡아 서치원 동창회장과 함께 남가주 관악연대 활동의 전성기를 맞았던 즐거운 추억이 있다. 2013년에는 바통을 건

네받아 총동창회장으로 봉사했다.

젊어서는 취미라곤 여름이나 겨울이나 태권도만 하고 다녔는데 나이 들면서 다양한 스포츠를 하고 여행도 즐기는 편이다. 한달 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굴러서 쇠골 탈골 교정 수술을 받았다.

내 자랑거리는 결혼 43주년을 넘긴 집사람이다. 항상 같이 다니고 내가 하는 모든 운동도 같이 하는데 68세 할머니가 Season Pass를 끊어서 스노보드를 같이 즐긴다.



김재훈  
(공대 72)

서 기술분야 최고위직인 기술임원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40여개의 보잉 연구 기술상과 NASA 신기술상을 수상하고, 100여편 이상의 과학기술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학자로서의 빛나는 성취 못지 않게 그를 한인 사회의 롤 모델이자 멘토로 만든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인 2세들의 교육과 동문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물론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열성적인 봉사 때문이다.

2008년 워싱턴 지부 동창회장을 맡아 SNU포럼과 무보험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비영리 진료단체 코너스톤을 출범시켰다. 이러한 공로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전기공학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흑독하기로 이름난 해군 사관후보생 훈련 18주만에 해군장교로 임관해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3년간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한전기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돼 박사과정을 하러 미국에 왔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를 거쳐 보잉사의 연구 개발 핵심인 보잉 기술연구소에



홍성선  
(약대 72)

1986년 미네소타 주립대학교(Univ. of Minnesota) 유학생으로 도미해 사회약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귀국해 중외제약 임상연구실을 맡아 일하면서 동시에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겸임교수로 강의와 학위 논문 지도를 했다. 2001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California

Clinical Trials 에서 근무했고 개업 약국을 잠시 운영하다가 지금은 Olive View UCLA Medical Center에 재직하고 있다.

2003년부터 남가주 약대와 총동창회 활동에 참여해 약대 회장, 총동창회 부회장, 사업국장, 총무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지난해 민일기 남가주 총동창회장과 함께 총무국장으로 일할 때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2월 신년 총회 행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대면 행사를 접어야 했고, 온라인 행사 밖에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크다. 이 자리를 빌어 적극 도와 주신 임원진 및 선배배 동문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요즘은 은퇴를 위해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는데 10여년 동안 거의 하지 않았던 골프를 다시 시작했다.



박평일  
(농대 69)

동창회보를 받아보는 동문들에게는 설명이 따로 필요없는 동문이다. 일명 ‘버지니아 숲속의 시인’으로 동창회보에 주옥같은 글을 쓰거나 많은 동문들에게 카톡으로 시를 보내준다. 그의 글이 좋아 한국과 미국의 여러 매거진들이 앞다투어 글 게재를 요청한다.

1977년 미국에 와 부동산 관련 일을 해왔고 30년 가까이 부동산 감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훈  
(상대 74)

가공식품 수입 유통업체 자연나라(Jayone Foods) 대표로 한인사회 안전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남가주 파라마운트시에 회사를 세워 그동안 LA를 기반으로 미국·캐나다 등 북미 전역에 한국산 농산물 및 제조가공품을 수입 판매하는 중견 기업으로 키웠다. 오랫동안 미주동창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며 재정 후원을 해왔다.



#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1차 회기: 2021. 7. 1 ~ 2022. 6. 30) (2차 회기: 2022. 7. 1 ~ 2023. 6. 30)

※ 볼드는 1, 2차 회비

<b>남가주</b>	배효식 (문리 52)	정 황 (공대 64)	김영수 (법대 66)	한태진 (의대 58)	윤덕상 (치대 62)	우제형 (상대 54)	임수암 (공대 62)	김성준 (의대 55)
강호석 (상대 81)	신복례 (문대 83)	조동준 (의대 57)	김영철 (의대 55)	허병렬 (사범 40)	이시영 (상대 46)	유영준 (의대 70)	양정자 (간호 61)	박창익 (농대 64)
권오형 (사대 61)	성낙호 (치대 63)	조만연 (상대 58)	김영희 (간호 54)	허선행 (의대 58)	이덕수 (문리 58)	양용관 (수의대 62)	<b>정선휘 (공대 65)</b>	안창현 (의대 55)
강경수 (법대 58)	성주경 (상대 68)	조상호 (농대 51)	김용연 (문대 63)	허영자 (약대 63)	이봉수 (간호 69)	원종민 (약대 57)	.....	<b>이재덕 (법대 60)</b>
강중경 (공대 48)	서명희 (농대 67)	조정현 (수의 58)	김완주 (의대 54)	현영수 (음대 61)	이성길 (의대 71)	장윤희 (사대 54)	<b>텍사스</b>	이정필 (의대 58)
강춘자 (간호 69)	안승호 (공대 71)	<b>주정래 (상대 65)</b>	김정희 (간호 69)	.....	이영섭 (수의 56)	전희순 (간호 76)	<b>LA/DALLAS/NM</b>	임필순 (의대 54)
강희창 (공대 57)	양명교 (의대 55)	진석호 (공대 04)	김중원 (사대 58)	<b>뉴잉글랜드</b>	임복경 (문리 56)	조세진 (의대 65)	박석규 (간호 59)	전영자 (미대 58)
권기상 (경영 72)	양승문 (공대65)	추교훈 (농대 63)	김진자 (간호 60)	<b>MA/RI/NH/ME/VT</b>	임현재 (의대 59)	<b>조화유 (문리 61)</b>	박진성 (의대 67)	최준희 (의대 58)
김강수 (문리 59)	양운택 (의대 58)	최중권 (문대 59)	김중현 (법대)	김문소 (수의대 61)	장윤일 (공대 60)	최재귀 (미대 63)	<b>이석호 (농대 78)</b>	한성수 (의대 54)
김경수 (치대 58)	오선웅 (의대 63)	최영근 (사범대)	김태일 (공대 68)	김만옥 (약대 56)	진보린 (약대 56)	천권희	유 황 (농대 56)	황현상 (의대 55)
김경숙 (간호 68)	오찬수 (약대)	최영구 (상대 61)	김해암 (의대 52)	김영길 (문리 62)	홍청일 (약대 57)	.....	유한창 (공대 69)	.....
김교복 (농대 63)	유이종 (농대 74)	<b>홍선례 (음대 70)</b>	문소자 (음대 60)	김정선 (문리 66)	함성택(문리 55)	<b>워싱턴주</b>	<b>진기주 (상대 60)</b>	<b>커네티컷</b>
김난영 (공대 53)	<b>윤경민 (법대 55)</b>	한동수 (의대 60)	문석면 (의대 52)	김희경 (음대 73)	.....	김교선 (법대 54)	조진태 (문리 57)	라찬국 (의대 57)
김동산 (법대 59)	<b>윤석철 (상대 60)</b>	.....	리준무 (음대 65)	박종승 (의대 56)	<b>시카고</b>	김성열 (치대 61)	최관일 (공대 54)	최창송 (의대 52)
김동훈 (법대 56)	윤희성 (치대 65)	<b>북가주</b>	박순영 (법대 56)	송미자 (농대 62)	박은숙 (미대 62)	김재훈 (공대 72)	최성호 (문리 58)	홍성휘 (공대 56)
<b>김병완 (공대 58)</b>	육태식 (의대 61)	<b>SAN FRANCISCO</b>	박 상 (상대 55)	<b>이준영 (치대 74)</b>	박정일 (의대 61)	김홍록 (간호 63)	최용천 (의대 53)	.....
김상찬 (문리 65)	<b>이건섭 (치대 54)</b>	<b>강재호 (상대 57)</b>	배상규 (약대 61)	이영인 (사대 74)	.....	류성열 (공대 72)	최중권 (문리 59)	<b>캐롤라이나</b>
김성호 (법대 64)	<b>이범모 (치대 74)</b>	권오형 (사대 61)	배정희 (사대 54)	이의인 (공대 68)	<b>오하이오</b>	박진수 (의대 56)	최취기 (공대 71)	<b>SC/NC/KY</b>
김성환 (의대 65)	이종묘 (간호 69)	김명환 (문리 67)	손규성 (사범 61)	우상영	김동광 (공대 62)	변종혜 (법대 58)	.....	김기현 (문리 52)
김수영 (사대 57)	<b>이휘영 (법대 59)</b>	김은용 (공대 62)	신두식 (의대 58)	장용복 (공대 58)	김태웅 (의대 61)	신재무 (사대 77)	<b>필라델피아</b>	이범세 (의대 63)
김순자 (치대 57)	이상근 (경영 84)	<b>김희경 (음대 73)</b>	양거영 (의대 48)	<b>최홍균 (공대 69)</b>	김현황 (공대 64)	안승적 (농대)	<b>PA/DE/S.NJ</b>	<b>이종영 (음대 58)</b>
김영덕 (법대58)	이장길 (치대 63)	남광순 (음대 64)	양명자 (사대 63)	홍영석 (공대 58)	이영웅 (의대 56)	윤석진 (문리 64)	김한중 (공대 56)	정신호 (자연 78)
김영도 (공대 67)	<b>이종영 (음대 58)</b>	민병덕 (상대 69)	원인순 (문리 67)	.....	이수자 (공대 62)	윤태근 (상대 69)	강준철 (사대 59)	.....
김영봉 (사대 60)	이호진 (간호 74)	박영옥 (사범 55)	유재룡 (공대 58)	<b>라스베가스 LV/NV</b>	.....	양용관 (수의대 62)	고영자 (치대 63)	<b>테네시</b>
김영희 (00)	이영신 (간호 77)	박성수 (공대 59)	육순재 (의대 63)	김영중 (치대 66)	<b>오레곤 OR/ID</b>	이길송 (상대 57)	김경숙 (문리 59)	김경덕 (공대 75)
김원탁 (공대 65)	이익삼 (사대 58)	위장호 (의대 73)	윤 철 (문대 54)	.....	.....	이순모 (공대 56)	길정숙 (사대 53)	임호순 (간호 71)
김일영 (의대 65)	이범식 (공대 61)	윤성희 (사대 58)	윤인숙 (간호 63)	<b>미네소타</b>	.....	장현길 (공대 60)	김국간 (치대 64)	서갑식 (공대 70)
김자경 (사대 60)	이소희 (의대 61)	이정남 (공대 63)	윤종숙 (약대 66)	이창재 (문리 61)	<b>샌디에고</b>	정영자 (사범 56)	김주진 (법대 54)	.....
김자성 (의대 79)	이영일 (문리 53)	이민영 (문리 57)	윤현남 (공대 64)	주한수 (수의대 62)	이휘영 (법대 59)	.....	문대욱 (의대 67)	<b>하와이</b>
김재영 (농대 62)	이정근 (사대 60)	임승쾌 (문리 66)	이상무 (의대 56)	차재호 (농대 84)	.....	<b>유타 UTAH/NV</b>	배성호 (의대 65)	김달욱 (사대 55)
김준일 (공대 62)	이탁성 (공대 56)	신규명 (공대 64)	이문봉 (미대 76)	.....	<b>워싱턴 DC</b>	김인기 (문대 58)	송성익 (문대 59)	최경윤 (사대 51)
김진식 (공대 66)	이승훈 (상대 74)	심영춘 (수의 64)	이강욱 (공대 70)	<b>샌디에고</b>	<b>DC/MD/VA/WV</b>	김용재 (의대 60)	심완섭 (의대 69)	하인환 (공대 56)
김태윤 (법대 53)	이재룡 (공대 71)	장근숙 (간호 73)	이명준 (공대 72)	.....	고무환 (법대 57)	김인기 (문리 58)	이송공 (의대 63)	.....
김현순 (간호 69)	이성자 (간호 76)	전병련 (공대 54)	이성구 (약대 56)	<b>시카고 IL/IN/WI/MI</b>	곽명수 (문리 65)	.....	이성숙 (가정 74)	<b>하트랜드</b>
김희창 (의대 55)	이준호 (상대 65)	정규남 (공대 52)	이승일 (경영대학원 66)	김병윤 (문리 65)	권철수 (의대 68)	<b>조지아 GA/AL/MS</b>	이지춘 (미대 57)	<b>IA/MO/KS/NE/AR/OK</b>
김희창 (공대 64)	이 호 (음대 92)	정유석 (의대 58)	이상원 (62)	김성일 (공대 68)	김종호 (약대 68)	<b>김학래 (공대 60)</b>	전무식 (수의 61)	김용환 (공대 71)
나두섭 (의대 66)	이휘영 (법대 59)	조태록 (사범 60)	이용대 (약대)	김승주 (간호 69)	김현정 (미대 94)	김용건 (문리 48)	전희근 (의대 54)	.....
나민주 (음대 65)	임동규 (미대 57)	최경선 (농대 65)	이유성 (사대 57)	김용환 (공대 71)	박인영 (의대 69)	김종구 (수의 73)	정덕준 (상대 63)	<b>휴스턴</b>
노명호 (공대 61)	임문빈 (상대 58)	탁은숙 (문리 54)	이정은 (의대 58)	김윤하 (공대 66)	<b>박홍우 (문대 61)</b>	김현희 (간호 59)	정용남 (문리 60)	박태우 (공대 64)
류정순 (가정 69)	임춘수 (의대 57)	.....	이종석 (상대 57)	김정화 (음대 56)	박용걸 (약대 56)	김태형 (의대 57)	정태광 (공대 74)	최중권 (문리 59)
문인일 (공대 51)	장동석 (문리 66)	<b>뉴멕시코</b>	이충호 (의대 63)	고병철 (법대 55)	서희열 (의대 55)	백성식 (약대 58)	<b>조영호 (음대 54)</b>	.....
<b>방명진 (공대 73)</b>	장원경 (미대 73)	<b>최창송 (의대 52)</b>	전병삼 (약대 54)	남성희 (의대 56)	송병준 (약대 68)	송용덕 (의대 57)	주기목 (수의 68)	<b>룩키마운틴스 CO</b>
박명근 (상대 63)	장정용 (미대 64)	.....	전성진 (사대 54)	민영기 (공대 65)	신상근 (의대 52)	손중수 (의대 50)	.....	.....
박민식 (수의 65)	전경배 (의대 75)	<b>뉴욕 NJ/NY</b>	정동성 (상대 58)	박은숙 (미대 62)	이준영 (치대 74)	유성무 (상대 66)	.....	<b>알래스카</b>
박인창 (농대 65)	전낙관 (사대 60)	강영선 (공대 50)	조규용 (의대 59)	<b>박정일 (의대 61)</b>	이건형 (수의 54)	오경호 (수의대 60)	<b>플로리다</b>	.....
박익하 (치대 56)	전상욱 (사대 52)	곽선섭 (공대 61)	조태환 (상대 56)	박창욱 (공대 56)	이내원 (사대 58)	.....	.....	.....
박제환 (문대 75)	전원일 (의대 77)	권문웅 (미대 61)	주익돈 (의대 58)	소진문 (치대 58)	이선구 (문리 65)	<b>알림</b>	.....	.....
박찬호 (농대 63)	정균희 (의대 64)	권영대 (공대 69)	차국만 (상대 56)	<b>신석균 (문대 54)</b>	이영덕 (사대 61)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아직 정리중입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는 실수가 있으면 10월호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	.....
박취서 (약대 60)	정수만 (의대 66)	김광호 (의대 66)	최영태 (문리 67)	안은식 (문리 55)	이재승 (의대 55)	.....	.....	.....
배운숙 (미대 65)	정 신 (보건 92)	김병권 (문리 63)	<b>한승순 (간호 70)</b>	유기정 (간호 72)	이준영 (치대 74)	.....	.....	.....
배동완 (공대 65)	정예현 (상대 63)	김석식 (의대 58)	한영수 (의대 61)	윤경순 (사대 61)	이호균 (법대 60)	.....	.....	.....
배병욱 (음대 58)	정연웅 (상대 63)	김영무 (공대 75)	<b>한병용 (문대 71)</b>	.....	.....	.....	.....	.....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아직 정리중입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는 실수가 있으면 10월호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광고 후원금, 일반 후원금 (2021. 7. 1 ~)

단위: 달러

광고 후원금		일반 후원금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캐나다 밴쿠버		커네티컷		하트랜드		평이사비(제30차 평의원 회의)		미주동창회 유지, 성장을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참여, 후원 요청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강호석 (상 81)	240	성주경 (상 68)	200	소진문 (치 58)	200	민병근 (공 65)	100	이주희 (음 89)	100	이청광 (상 61)	100	이승패 (문 66)	100	김정수 (문 61)	100	박상근 (법 75)	100	박상길 (농 58)	100	박제환 (문 75)	100	박중수 (수 58)	100	박평일 (농 69)	100	박해옥 (간 69)	100	방석훈 (농 55)	100	서치원 (공 69)	100	성주경 (상 68)	100	손영아 (음 85)	90	손재욱 (가 77)	100	송세진 (치 78)	100	신건호 (법 53)	100	신영찬 (의 62)	100	신응남 (농 71)	100	신호신 (약 00)	100	오인환 (문 63)	100	오홍조 (치 56)	100	윤상래 (수 62)	100	이기준 (법 54)	100	이병준 (상 55)	100	이상강 (의 70)	100	이상숙 (가 74)	100	이종도 (공 66)	100	이종준 (수 81)	100	최진석 (법 64)	100	한귀희 (미 68)	100	한중철 (치 62)	100	한홍택 (공 60)	100	한효동 (공 58)	100	홍경삼 (문 61)	100	홍훈정 (음 70)	100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16대 미주동창회 주소로 납부 바랍니다  
SNUAA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DIAMOND GLOBAL ESCROW, INC

## Audra Hong

홍훈정(음대 70)




**(818) 402.2005**

**(909) 860.3333**

**(909) 860.3330**

**audra.hong@diamondage.com**



**22632 GOLDEN SPRINGS DR. STE. 160, DIAMOND BAR, CA 91765**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복합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C, Marina Del Ray Ca 90292

Singyou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chang

장 준(인문 85)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jun@junchangcpa.com

(818)772-2811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Cpa

권국원(공대) kkwuncpa@yahoo.com

(213)480-0070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용남 변호사

신용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1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의료/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richardyoondm@yahoo.com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75(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240(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50(2021. 7 ~ 2023. 6)	<input type="checkbox"/> \$480(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3,000(중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노명호**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박제환** 문리대 75·남가주 총동창회 차기회장

**제16대 미주동창회**  
**노명호**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민일기** 약대 69·전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Professor of  
 College of Pharmacy  
 Western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고문: 김종섭(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SNUAA-USA**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사무장: 홍선례(음)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중(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정(가)

▷문화국장: 홍선례(음)

▷홍보국장: 김자성(의)

**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장: 신복례(인)

▷지부 편집위원: 이경애(문), 최승희(사), 이주희(음), 박승현(음), 한정희(미)

**논설 위원**

▷논설 위원: 정태영(문), 문성길(의), 박평일(농), 민경훈(법), 정홍택(상), 김홍목(문), 김재

훈(공), 김지영(사), 박제환(문), 강신용(사), 이종호(인), 변우진(인), 노재원(인), 김학천(치)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병연(공),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uaa.org

웹사이트 www.snu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778)990-6589  
sphro17@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vics@shaw.ca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용문(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최용준(수의대 81) T: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차기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전병택(상대 65)  
bryanchon@gmail.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시카고 IL/IN/WI/MI (Jan~Dec)**

김윤하(공대 66) snuaachicago@gmail.com  
www.snuuaachicago.org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김유경(음대 72) T: (781)223-4411  
YkimLC@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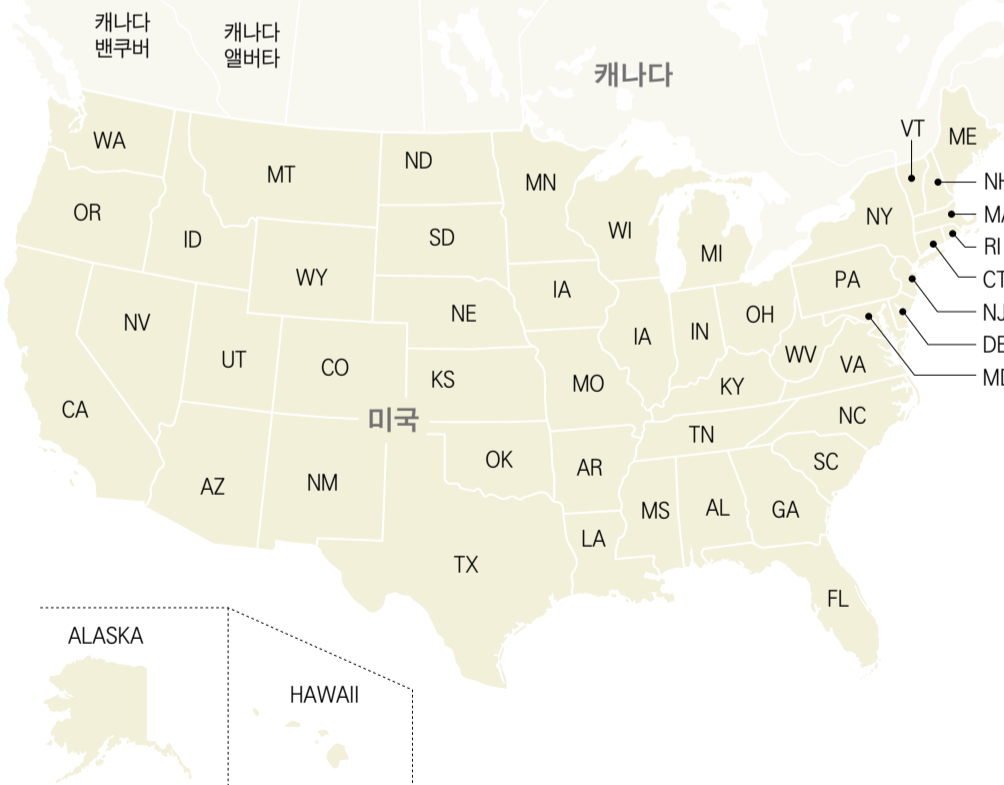
차기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북가주 SANFRANCISCO (Jan~Dec)**

임준원(공대 77) T: (408)220-4260  
joonwlim@gmail.com

**샌디에이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뉴욕 NY/NJ (July~Jun)**

조상근(법대 69) T: (201)913-0565  
amcoinc@msn.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균(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명자(간호 74)  
drmiilee@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커네티컷 CT**

박용희(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 77) T: (808)956-2611  
nsung@hawaii.edu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이성숙(가정 74) T: (610)417-4789  
ssh1120@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강성호(수의 81) T: (214)215-4447  
oah9999@yahoo.com

**애리조나 ARIZONA**

오윤환(공대 56) T: (520)271-2601  
youn.oh@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Sep~Aug)**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조지아 GA/AL/MS (Jan~Dec)**

김재호(공대 80) T: (404)372-2621  
jhkros@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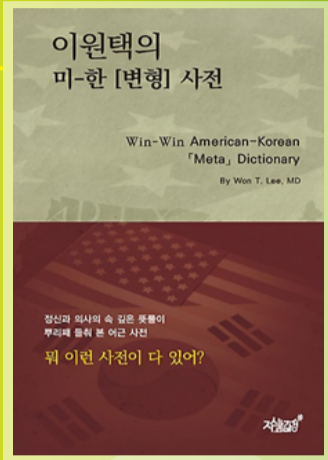
최희덕(상대 68) T: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정신과 의사 (의대 '65)

#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셜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http://bandibookus.com)



[www.yongsusanla.com](http://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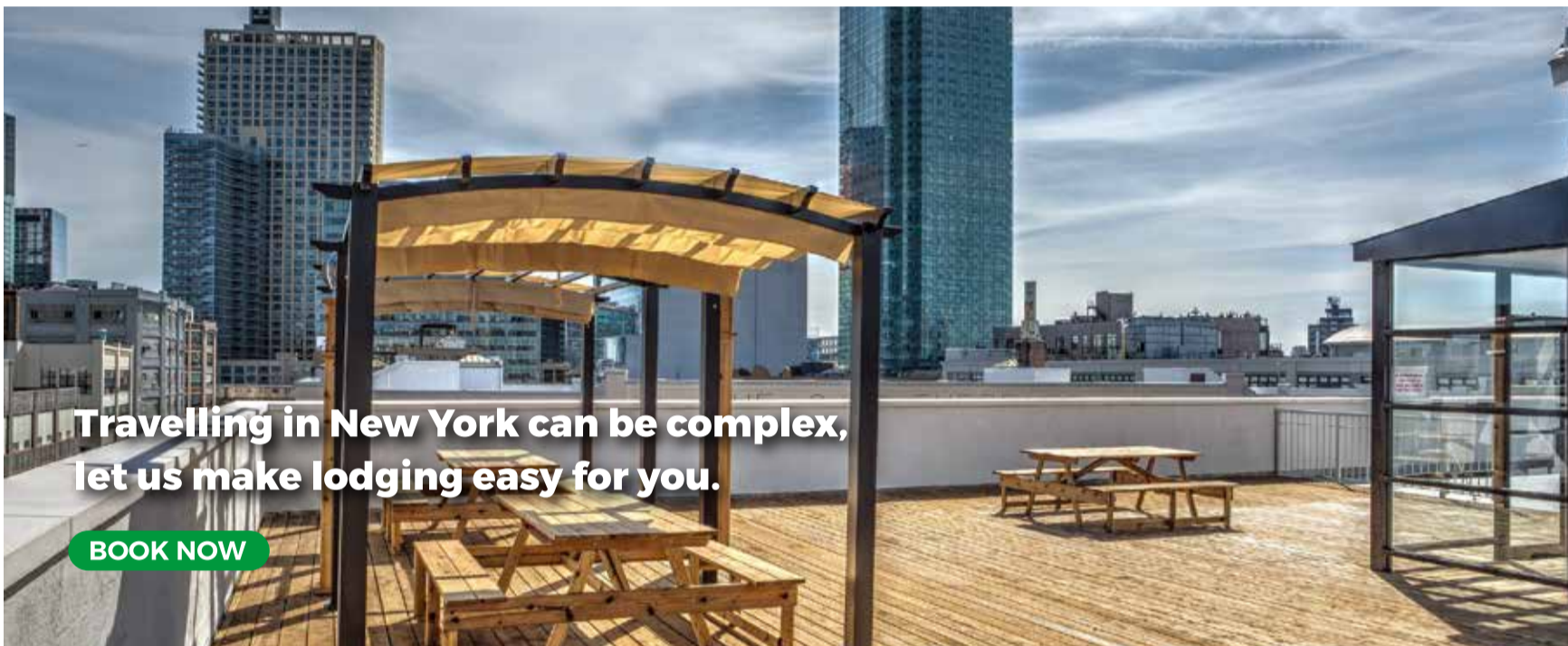
# 결혼해듀오



LA 213-383-2525  
NY 201-947-2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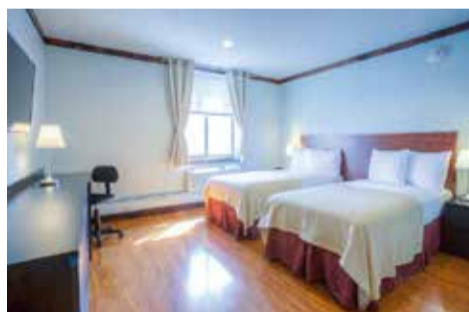
[www.duouusa.net](http://www.duouusa.net)





Travelling in New York can be complex,  
let us make lodging easy for you.

**BOOK NOW**



**AT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WHETHER YOU ARE HERE TO EXPLORE MANHATTAN OR ARE TRAVERSING THE LOCAL COMMUNITY IN QUEENS, OUR HOTEL AND STAFF ARE AVAILABLE TO ASSIST YOU TO THE BEST OF OUR ABILITIES. START YOUR MORNING WITH A COMPLIMENTARY HOT BREAKFAST BUFFET AND AT THE END OF THE DAY, YOU CAN SIT BACK WITH YOUR LOVED ONES AND ENJOY THE SPECTACULAR VIEW OF MANHATTAN FROM OUR ROOFTOP; TRULY A PERFECT WAY TO WRAP UP A JOURNEY TO NEW YORK!

**LIC HOTEL**

1.718.463.0001

44-04 21st street, LIC, NY 11901

jeewha@hotmail.inc

**김승호(공대기)**